실물 교훈
엘렌 G. 화잇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실물
교훈
엘렌 G. 화잇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명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이 드러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神性)이 인성(人性)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목차 3
1 장 비유로 가르치심 6
2 장 씨 뿌리는 자 12
3 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31
4 장 가라지 35
5 장 겨자씨 한 알 38
6 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 41
7 장 누룩과 같으니라 48
8 장 감추인 보화 53
9 장 값진 진주 61
10 장 그물(網) 65
11 장 새 것과 옛 것 66
12 장 주기 위하여 구함 73
13 장 두 예배자 81
14 장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90
15 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101
16 장 탕 자 110
17 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18
18 장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123
19 장 용서의 한도 135
20 장 손해가 되는 이익 141
21 장 부자와 나사로 145
22 장 말과 행함 153
23 장 주의 포도원 161

24 장 예복을 입지 않음 177

25 장 달란트 185

26 장 불의의 재물 213

27 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219

28 장 은혜의 보상 228

29 장 열 처녀 238

1 장 비유로 가르치심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명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이 드러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神性)이 인성(人性)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COL 17.1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는 선자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마 13:34, 35)고 성경은 말한다. 천연계(天然界)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媒介物)이다. 천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靈界)로 인도한다. COL 17.2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실례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던 광채가 천연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그러나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COL 18.1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리웠으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다.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롬 1:25, 21)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하였다. 천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제사제도와 성경 자체까지도 너무 곡해(曲解)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방편이 되었다. COL 18.2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드리운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 COL 18.3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꺾어서 어린이들과 춘소년들의 손에 쥐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생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다. “들의 백합화가(단순한 자연미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아래와 같은 귀한 보증과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COL 19.1

산상설교 중에 하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고 실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어서 그의 손을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을 향해 펴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28~33). COL 19.2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백합화와 들풀에게 주신 당신의 기별을 해석하셨다. 그는 우리가 피어나는 모든 백합화와 뾰족뾰족 싹트는 모든 풀잎사귀에서 이같은 기별을 찾아내어 읽기를 바라신다. 그의 말씀에는 확실한 보증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해준다. COL 19.3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너무나 넓고 그의 교훈은 너무도 원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천연계의 모든 현상이 사용되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다 어떤 영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연계는 구주의 비유들로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COL 20.1

그의 공중전도 사업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여서 모든 청중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므로 속히 그 진리를 빼앗겨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마 13:13~15). COL 20.2

예수께서는 질문을 이끌어 내고자 하셨으며 주의성 없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 주고자 하셨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 청중들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COL 20.3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킴으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回想)하게 되었다.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에게는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공개되었다.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COL 21.1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통로(通路)를 찾고 계셨다. 그는 여러 가지 실례를 사용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셨다. 그가 사용한 실례들 모두가 그들이 일상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인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청중들의 흥미는 더욱 고조되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자기가 등한시되었다거나 잊어버린바 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친절하고 동정 어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COL 21.2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를 두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당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또 이들의 밀정(密偵)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서 그를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아내어 지금 온 세상을 모두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듯이 보이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산헤드린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로써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外飾)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공박(功駁)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闡明)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그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천연계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롬 1:20)는 것이다. COL 22.1

비유를 통해 주신 구주의 교훈에는 참된 고등교육(高等教育)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원(深遠)한 과학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열어 보일 수 있으셨으며 수세기에 걸쳐서 수고하고 연구하여야 겨우 통찰할 수 있는 신비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모든 발명을 착상(着想)하고 자극할 풍부한 과학 분야의 암시를 제공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또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줌으로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의 모든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시키는 데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업에 대한 인간의 학설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과 섭리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COL 22.2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성 계발에 요긴한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동시에 영생을 붙잡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COL 23.1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지도하셨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7~9). 예수께서는 당신이 친히 주신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원칙의 높고 아름다움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를 보여 주셨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대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실 때에 그들의 거처를 산과 골짜기에 두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정생활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도 그처럼 그의 제자들을 천연계의 사물들이 잘 보이는 호숫가나 산기슭이나 수풀에서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배우는 동시에 그분의 사업에 그분과 협력하여 일함으로 그들이 받은 지식을 응용하였다. COL 23.2

이와 같이 우리들도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와 친숙해져야 한다. 실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이므로 우리는 이 책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의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COL 24.1

천연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이러한 공과에는 그것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단순성과 순결성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원천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천연계의 미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여 순결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연구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이론과 가설과 소위 말하는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천연계와 밀접히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들로 하여금 천연계와 그리스도교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심을 알게 하라. 그들로 천연계와 영적 사물들 사이에 있는 조화를 보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품성 형성에 필요한 공과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정신력이 강해지고 품성은 계발되어 온 생애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COL 24.2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안식일 제정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결합시키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 성일(聖日)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구주의 비유를 그가 말씀하신 현장, 곧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들과 숲과 풀과 꽃들 사이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재적(實在的)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COL 25.1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안식일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일하는 평일과도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마련하셨다. 즉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과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마음 밭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이 예증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용한 일상 업무와 생애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일의 수고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창조주와 구주를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의 자질구레한 일과 업무를 통해 금실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취는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만물에 깃들 것이며 우리는 항상 하늘의 진리에 대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순결한 형상으로 닮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사 54:13)요, 우리가 그 곳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숙명적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전 7:24)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COL 26.1

2 장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와 씨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COL 33.1

군중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자리에 누워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기다리는 병자들도 있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였으므로 그는 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주위에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뿌리셨다. COL 33.2

군중이 점점 많이 몰려와 그 자리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되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의 어선을 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자기를 태워 바다를 건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고깃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시켜 배를 뭍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 해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COL 34.1

그 해변 일대에는 아름다운 게네사렛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에는 산들이 솟아 있었고 산비탈과 들에는 농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이른 철에 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COL 34.2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 13:3~8). COL 34.3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초림하신 방법 역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제사 제도의 기초였으며 엄숙한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었다. 이 모든 의식과 예전(禮典)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나타나실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하고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敎條)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가리워 버렸다. 사람들의 전설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의식의 실체(實體)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에 그가 모든 표상적인 의식의 성취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의 원형이신 분을 거절하고 그들의 표상적인 의식과 무용지물이 된 예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는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 달라는 요구로 회답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야가 나타나면 그가 대 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야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써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 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COL 34.4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마 13:37).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COL 35.1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의 뜻을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 교훈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무리들은 이 새 교사가 무슨 목적으로 그토록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야심을 처절하게 실망시켰다. 제자들까지라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저희는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COL 35.2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더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마음 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국의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빛이 영혼의 성전을 비추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길에 밝게 비치는 등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COL 35.3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마 13:3)간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안에 살고 있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 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써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COL 36.1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행 22:21)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COL 36.2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 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써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거하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진리를 계시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벧전 1:23)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COL 37.1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萌芽力)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6:63, 5:24)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COL 38.1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COL 38.2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에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어떻게 말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써 대하셨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 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COL 38.3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COL 39.1

성경은 이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顯示)가 없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COL 40.1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主題)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요 14:3)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COL 40.2

그릇된 학설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복음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 하나님의 보고로부터 나온 신선한 진리가 생활 속에 번쩍이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사 32:20)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말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렘 23:28).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 30:5, 6). COL 40.3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 원칙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 다른 문제들이 그들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회의론적 사상들이 섞여 있다. 그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 발견된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됨으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가 오도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상적 학설과 비교되고 있으며, 드디어는 불확실하고 미덥지 못한 것같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혹의 씨가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어 그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심겨진 의혹의 씨가 발아되어 싹이 튼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COL 41.1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COL 41.2

또한 여기에 사람들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COL 41.3

그러므로 그같은 모든 것은 다 그릇된 교육이다.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마음을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세나 내세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교육이다. COL 41.4

이 교육이 과학적 연구를 방해하거나 교육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일처럼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하고 활기차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지력은 발달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그 지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더욱 넓은 사색(思索)의 분야로 인도되어 불멸의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COL 42.1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새화 해 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분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COL 42.2

그러나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아마 그럴 듯하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고 말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요일 1:2)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COL 43.1

흙 - 길가에 떨어진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아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써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COL 43.2

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COL 44.1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히 3:13)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COL 44.2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 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COL 44.3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COL 45.1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해 한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 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COL 46.1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COL 46.2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COL 46.3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니다. 마태는 구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COL 46.4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선한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강하지 못하며 그의 굳센 능력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COL 47.1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요 6:60)고 말한다. COL 47.2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 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COL 48.1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COL 48.2

이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데 있다.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7, 3). COL 48.3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COL 48.4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COL 49.1

그리고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 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COL 49.2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熱望)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원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COL 49.3

이것이 그리스도교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언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로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COL 50.1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COL 50.2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 버리지 않는다면, 발아된 씨는 질식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COL 50.3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 있다.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자란다.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됨으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 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 COL 50.4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다. 마가는 그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물욕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린다. COL 51.1

"세상의 염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苦役)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무거운 짐이 된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당부하신 공과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 없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 COL 51.2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력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물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롬 12:11)라고 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응분(應分)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하여야 한다. 저희는 죄를 짓지 않고서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엄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COL 51.3

그리고 이것들과는 전혀 같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과오에 빠진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COL 52.1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다.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저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 8:17)고 말한다. 저희의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마저도 잊어버린다. 저희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로 여기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들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계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에 덮여 기운이 막히게 된다. COL 52.2

"이생의…일락".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오락에는 위험이 있다. 체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방종의 습관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벧전 2:11)이다. COL 53.1

"기타 욕심". 이것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니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영혼의 원수가 된다. COL 53.2

•

젊은이의 기름진 마음밭

한창 자라나는 원기 왕성한 청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인 야망과 자기를 섬기고 싶어 하는 커다란 유혹을 만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양심을 마비시키고 참으로 훌륭한 품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이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COL 53.3

자녀들의 발육기에 있어서 부모들의 책임은 실로 크다. 부모들은 청년들이 인생과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도록 올바른 감화로 그들을 두를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친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참작해서 선택한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을 대도시 속에 두고 자녀들을 유행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내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위를 속화(俗化)와 교만을 조장하는 감화로써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쇠미해질 뿐 아니라 높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다.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특권을 세속적 이익과 바꿔 버린다. COL 53.4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줌으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려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로 온갖 운동 경기를 하도록 허락하고 재미있는 각종 연회 장소에 가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허식(虛飾)과 자기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쾌락에 대한 욕망은 빠져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강렬해져서 급기야는 그들의 흥미가 이곳에만 쏠리게 되어 그것을 인생의 원대한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으르고 방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거의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COL 54.1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교회까지도 오락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을 조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 바자회와 만찬회와 자선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경품 뽑기와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먹고 마시는 일과 사고파는 일과 온갖 놀이로 그 신성성이 더럽혀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예배당에 대한 존경심과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자제의 방벽은 약해지고,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과 허식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끈다. 그것들은 방종될수록 더 강해진다. COL 54.2

도시는 쾌락과 향락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많은 부모들이 도시가 저희 자녀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하여 도시 생활을 선택하지만 마침내 실망하게 되고 너무 늦은 다음에야 저희의 큰 실책을 후회하게 된다. 오늘날 도시는 급속히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휴일이 나태함을 조장시킨다. 극장에 가는 일과 경마와 도박과 음주와 흥청거리는 흥분적인 오락들이 온갖 욕정을 극도로 자극시킨다. 청년들은 유행의 풍조에 휩쓸려간다.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수같이 밀려드는 유혹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교적인 오락과 경박한 환락에 몰두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저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한 가지 형태의 방탕에서 다른 형태의 방탕을 즐기도록 인도되어 마침내는 보람 있는 생애를 보내기 위한 좋은 소질과 욕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신앙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식어지고 그들의 영적 생애는 어두워진다. 심령의 모든 고귀한 기능들이 마비되고 사람을 영적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이 저하된다. COL 54.3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상처를 냈고 일생동안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데 명민하여야 할 그들의 식별력은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민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의 계책도 분별하지 못한다.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그들은 시험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너무도 많다. 쾌락을 사랑하는 생애의 결국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두 파멸일 뿐이다. COL 55.1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5, 16). 사람의 마음속을 펴놓은 책처럼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눅 21:34)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9, 10). COL 55.2

마음밭의 준비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모든 경우에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COL 56.1

마음 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 4:3)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호 10:12).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요청하신다. COL 56.2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 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COL 57.1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들도 그 씨가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고 흙이 얕아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좋은 군사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어려움을 참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가르치라. 그들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쾌락이 그 매력을 잃게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온갖 짐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진리의 보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이다. 땅위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 버릴 것이다. COL 57.2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씨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COL 58.1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COL 58.2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취한 무분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에 마음 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COL 59.1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살전 2:13)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現實)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 10:33)고 말했던 것이다. COL 59.2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COL 59.3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COL 59.4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COL 59.5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 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COL 60.1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善行)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요 5:30)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성경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고 말한다. COL 60.2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COL 60.3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낙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써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COL 60.4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계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COL 61.1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약 5: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계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COL 61.2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再現)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 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COL 61.3

3 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적지 않은 의혹을 일으켰다. 청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기이히 여기며 당황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세상 왕국에 대한 기대로부터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으로 돌이키시고자 계속 노력하셨다. COL 62.1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COL 62.2

"추수 때"에 "낫을 대"는 농부는 곧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큰 날에 땅의 곡식을 거두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임무를 등한히 여기고 조는 분이 아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분으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다. COL 62.3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발아소(發芽素)를 갖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씨를 발아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人力)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 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COL 63.1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 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COL 63.2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사 61:11).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한다. 그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 주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COL 63.3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 행위이다. 씨가 발아해서 성장하는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귀중한 곡식을 던져 버리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단지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현재의 좋은 씨를 던져 버리는 것이다. 그는 여러 갑절의 수확을 바라면서 씨를 뿌린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도 저희가 뿌린 씨로부터 수확을 기대하면서 일하여야 한다. COL 64.1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 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될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전 11:6). 또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언약을 믿고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영적인 파종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않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1),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6)라는 약속들을 믿고 일해야 한다. COL 65.1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COL 65.2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소를 흡수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호 6:3)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말 4:2)을 발하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같이"(호 14:5)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호 14:7)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COL 66.1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COL 67.1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사 55:10)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COL 67.2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 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COL 67.3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갈 5:22, 23)이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COL 68.1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COL 69.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벧후 3:12).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COL 69.2

4 장 가라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COL 70.1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 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해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 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COL 70.2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化身)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COL 70.3

동방(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 갈아 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 준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COL 71.1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COL 71.2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므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 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COL 71.3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 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COL 72.1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시는 일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사단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COL 72.2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다. 가룟 유다도 사도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 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COL 72.3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쓴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 왔다. 교회가 정해 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의 교사(敎唆)로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교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묶어 두려는 사단의 방법이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릇 나타내지셨다. COL 73.1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COL 74.1

잎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COL 74.2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8).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언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COL 74.3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 날까지 같이 자란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놓는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COL 75.1

5 장 겨자씨 한 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경멸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나, 명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COL 76.1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 세상 정부 중에는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 없었고 어떠한 사회단체도 그것을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COL 76.2

씨 가운데 있는 배종(胚種)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 주신 생명력의 전개(展開)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猛獸)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표상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신다. COL 77.1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에는 겨자나무들이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에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 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효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COL 77.2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줄기 빛을 비춰 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COL 78.1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요한을 보라.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깁는 사람을 보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행과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떠나갈 때에 그들의 사명은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가! 또 가이사의 영(營)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보라. 로마 제국의 이교(異教)와 싸우는 작은 노예와 농부들의 무리를 보라. 이 세상 지혜의 걸작품인 강한 교회(천주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르틴 루터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황제와 법왕에 맞서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는 그를 보라. 형식주의와 육욕주의와 무신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웨슬리를 보라. 이교국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특권을 얻고자 탄원하는 한 청년을 보라. 그의 호소에 대한 교회 만능주의적(教會萬能主義的)인 대답은 이러하였다. "청년이여,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믿게 하고자 하시면 그대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그 일을 하실 것이 아닌가." COL 78.2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같은 씨에서 돋아나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요 9:29)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COL 79.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26~28),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5). COL 79.2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계 14:6~14) 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행 15:14)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계 18:1)질 것이다. COL 79.3

6 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

씨를 뿌리는 일과 발아하여 식물이 자라나는 일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천연계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대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COL 80.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씨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써 그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 12). 그 말씀이 지금도 씨를 자라게한다. 푸른 싹을 내는 모든 씨는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서"(시 33:9)게 하신 분의 기이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COL 80.2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마 6:11)소서라고 하셨다. 그리고 꽃을 가리키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증의 말씀으로 "…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마 6:30)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보증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사람의 종으로써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내어 버린 것 같은 씨를 살아 있는 식물(植物)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알찬 곡식이 되게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한 분량대로 공급하신다. 시편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있다. COL 81.1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 나이다.” (시 65:9-11) COL 81.2

하나님의 지배아래 있는 천연계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막 4:28)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성(理性)과 말하는 재능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그의 뜻을 불순종해도 된단 말인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이 세상을 어지럽혀도 괜찮단 말인가? COL 81.3

하나님과 함께 일함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저희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려도 햇빛과 우로와 구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업 경영과 모든 학문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적 사물과 품성 형성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COL 82.1

사람이 영적인 사업이나 세속적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COL 82.2

어린이들의 교육

씨에서 나온 식물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모습은 자녀 교육의 좋은 실물 교훈이 된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께서 작은

씨를 만드시고 그 씨에 생명소를 넣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씨의 성장을 주관하는 법칙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가 그분 자신의 생애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육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막론하고 그가 모든 청년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식물에 의하여 실증된 거룩한 성장의 법칙을 따라 행하셨다. 그는 비록 하늘의 임금이요 영광의 왕이셨으나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다. 소년시절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로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때 그는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소년답게 말하고 행동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부모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사를 도와드렸다. 자라나시는 각 단계에 있어서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미덕을 갖추셨으며 완전 무결하셨다. 성경은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고 하였고 그의 청소년 시절에 대하여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고 하였다. COL 82.3

여기에 부모와 교사의 할 일이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성벽을 잘 지도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생애의 각 단계에서 마치 밭의 곡식이 하는 것처럼 각각 그 시기에 적절한 자연미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 COL 83.1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일수록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다. 그들을 너무 추켜세우거나 그들이 듣는 데서 그들의 재치 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들의 용모와 말과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허영심을 길러 주지 말라. 그리고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의복도 입히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교만심이 조장되고 그들의 동무들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다. COL 83.2

어린이들은 어린이다운 단순성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로 나이에 맞는 작은 일을 하게 하여 부모를 돕게 하고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오락과 경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유년 시기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싹에 해당되는 데 싹은 그 싹 특유의 미(美)를 갖고 있다. 어린이들이 빨리 조숙해지도록 강요하지 말고 저희 유년 시절의 싱싱함과 미덕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보유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COL 83.3

어린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연령에 맞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전부이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갖 편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COL 84.1

종류대로 거둠

천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른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 준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한다. 수확은 게으른 자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모든 일꾼의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로 헤아려진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하에 따라 수확물에 나타나게 된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COL 84.2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애(自愛)와 자존심과 모든 자아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COL 84.3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不信)의 씨를 심는 자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옛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퍅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퍅함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냈다. 그리하여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맏아들의 차디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바닷물이 그의 말과 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덮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같은 바로의 경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진리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무서운 실례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뿌리는 씨에 대해 조심하게 될 것이다. COL 84.4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히 12:15)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칠지 모른다. 그리하여 선악간에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영향이 현세와 내세에까지 미치게 된다. COL 85.1

물가

씨 뿌리는 비유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것 모두에 대해서 관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주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사 32:20)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후 9:6).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땅에 던져 버림으로 더 많이 불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저희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COL 85.2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는 이 말씀 이상의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의 표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일깨우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 밭이 영적 진리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진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씨가 발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COL 86.1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본

땅에 씨를 뿌리는 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얻게 된다. COL 86.2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自愛)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保存)의 법칙이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COL 86.3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 에덴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무덤에 묻혀 썩도록 버려진 사람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전 15:42, 43)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COL 87.1

실제적 교훈

이상의 교훈은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천연계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 주신 많은 교훈들 중에 몇 가지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이 공과를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 자녀들로 하여금 직접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게 하라. 자녀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부모와 교사들은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뿌려진 마음 밭을 설명하여 줄 것이며 또한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진리의 씨를 심기 위하여도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씨를 밭에 뿌릴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공과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싹이 나올 때에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곡식이 자라는 동안은 천연계와 영계의 파종을 대조하며 계속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COL 87.2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밭을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교마다 경작할 토지가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교실로 여겨져야 한다. 천연계의 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과서로 여겨야 하고 이 교과서에서 영혼의 훈육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COL 87.3

밭을 갈며 토지를 개간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워야 할 공과들이 있다. 아무도 개간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고는 즉시 그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씨를 뿌리기 전 밭을 일구기 위해 열심 있고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영적 사업도 그러하다.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성령의 부드럽게 하고 굴복시키는 감화로 말미암아 깨어진, 개간되지 아니한 마음의 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밭을 일구는 데 고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밭은 수확물을 낼 수 없다. 마음 역시 그러하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을 개선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열매를 맺지 못한다. COL 88.1

마음내킬 때만 토지를 손질하게 되면 수확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날마다 주의성 있게 돌볼 필요가 있다. 토지는 자주 깊게 갈아서 곡식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가 돋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밭을 갈고 씨를 심는 자들은 수확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준비한 자들은 아무도 저희의 기대에 어긋나는 흉작으로 인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다. COL 88.2

주님의 축복은 이렇게 토지를 가꾸면서 천연계로부터 영적 교훈을 배우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일꾼이 밭을 갈 때에는 그가 자기 앞에 어떤 큰 보화가 있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론 그는 경험 있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과 교훈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되 스스로 교훈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그가 받는 훈련의 한 부분이다. 땅을 가꾸는 일은 마음의 훈련에 이바지한다. COL 88.3

씨가 싹이 트도록 하시고 자랄 힘을 주시며 밤낮없이 돌보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왕이시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더욱 크신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나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COL 89.1

7 장 누룩과 같으니라

교양 있고 세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큰 무리 가운데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과 인상이 험상궂은 도둑들과 불구자들과 방탕한 자들과 상인들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들었다.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회중을 바라보고 자문하였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疑問) 에 대하여 다음의 비유로써 대답하셨다. COL 95.1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COL 95.2

유대인들은 때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1)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고전 5:8)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COL 95.3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COL 96.1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COL 96.2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COL 97.1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COL 97.2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COL 97.3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듭남의 대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3~8). COL 98.1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4~8). COL 98.2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COL 98.3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COL 99.1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COL 100.1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 남을 이루게 해 준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 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원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COL 100.2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COL 101.1

이러한 진리의 원칙에 젖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 환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도외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극기하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사업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를 초월하게 해준다. COL 101.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될 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COL 101.3

사도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5, 16)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COL 102.1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COL 102.2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된다. COL 102.3

8 장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COL 103.1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화를 땅속에 감추는 풍속이 있었다.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하였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적군의 침입을 받아 약탈될 위험이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저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숨겨 두곤 했다. 땅은 재물을 감추어 두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감춰둔 장소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주인이 사망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가게 될 때 그가 애써 숨겨 둔 재산은 그것을 발견한 운 좋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묵은 밭에서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COL 103.2

사람들이 경작할 땅을 빌려서 소로 그 밭을 갈 때 그 속에 묻혔던 보화가 드러나곤 했다.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그 보화를 본래 감추어져 있던 자리에 도로 묻어 두고 집에 돌아가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 묵은 밭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밭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밭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그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 밭을 샅샅이 뒤진다. COL 103.3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COL 104.1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금광맥이 얽혀 있거나 보물이 가득 차 있지 않다. COL 104.2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COL 104.3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뿌리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날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寶庫)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COL 104.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야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COL 105.1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요 12:42).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COL 105.2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안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COL 106.1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COL 106.2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 4). COL 106.3

보화의 가치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재물 얻는 일에 몰두되어 영원한 실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러한 폐단을 교정하는 일에 착수하셨다. 그는 사람의 심령을 마비시키는 미혹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는 소리를 높여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고 외치셨다. 그는 타락한 인류 앞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더욱 고상한 세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실재(實在)를 보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나라의 문턱까지 이끌고 가셔서 그들에게 거기 있는 보화를 보여 주셨다. COL 106.4

이 보화의 가치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광산에서 캐내는 어떠한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COL 107.1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욥 28:14~18 COL 107.2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보화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그의 위대한 교육자이다.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의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 있는 금광이다. COL 107.3

참된 고등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고 사람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서적을 선택할 때에는 그 얻은바 교육은 교육의 왜곡인 것이 된다. COL 107.4

천연계 가운데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교사이다. 천연계는 큰소리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그들의 시력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그들 스스로 천연계를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의 마음에는 바른 공과가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한다. 천연계가 주는 공과가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도 곡해되었으므로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에게서 떠나게 한다. COL 107.5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하늘 교사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과서인 성경책은 구식이며 케케묵었고 아무 재미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활기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가운데 무한히 값비싼 보화가 있음을 보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판다. 그들은 위대한 저술가로 소문난 사람들의 가설이 담긴 책 대신에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던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교사이신 동시에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의 말씀을 택한다. COL 107.6

보화를 등한히 여긴 결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도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기만적인 논리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유도하는 주장을 펴나갔다. 그의 궤변은 오늘날에도 에덴동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자들 중에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저술가들의 사상을 섞어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 준다. 그들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며 저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COL 108.1

오늘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들의 모든 능력을 지식을 얻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다스리는 법칙을 준행치 않는다면 그 학생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그는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헤아릴 힘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자기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는 몸과 마음을 무모하고 부조리하게 다루게 되고 그러한 악습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순결케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원칙의 배양을 등한히 함으로 그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습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망쳤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친 그의 고된 연구는 허사가 된다. 그는 자기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그의 몸이 파괴되어 있다. 그는 이생뿐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낙오자가 되었다. 그는 세상 지식을 얻으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도외시함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화를 잃고 말았다. COL 108.2

보화를 찾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성경 진리로 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감춰진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이 연구해 낸 것은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올려 놓기 때문이다. 저희는 응당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고 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말을 둔다. COL 109.1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의 말씀 역시 진리이다. 그 말씀은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보배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COL 110.1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애를 써 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 COL 110.2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막 12:24)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막 7:7)친 잘못을 비난하셨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COL 110.3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의 교사들의 경험을 되풀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둥절하여 짙은 흑암에 싸이게 된다. COL 110.4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추론의 희미한 빛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을 횃불로 더욱 환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 횃불과 같은 희미한 세상의 빛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COL 111.1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COL 111.2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 14)고 말씀하셨다. COL 111.3

경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사물을 보기는 하지만 종종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까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감춰진 보화를 찾는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그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애정과 모든 재능을 오로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바쳐야 한다. COL 112.1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을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疾視)에 맞추어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COL 112.2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가?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주견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持論)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COL 112.3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 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COL 112.4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COL 112.5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 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 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COL 113.1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 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COL 113.2

상고함으로 얻는 보상(報償)

누구든지 더 배울 지식이 없다고 생각지 말라. 인간의 지혜의 깊이는 능히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이 창작(創作)한 작품은 능히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편다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광(微光)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을 깊이 뚫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COL 113.3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이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연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眞價)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COL 114.1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 줄 것이다. COL 114.2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COL 114.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잠 2:3~5). COL 114.4

9 장 값진 진주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해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골 2:3)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전 1:30)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시므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COL 115.1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요 1:11)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요 1:5)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구스 내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COL 116.1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COL 116.2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장(市場)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매매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구할 수 있다. 진리의 보고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8)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무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 문안과 문간에서 나는 소리는 “오라”고 하는 소리이다. 구주께서는 간곡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계 3:18)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COL 116.3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요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계 3:17)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말씀하셨다. COL 117.1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COL 117.2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해야 하지만 세상의 시장(市場)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불 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COL 117.3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不純)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같이 보이나 그 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COL 118.1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리신 유업(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일찍이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는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요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써 버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다.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슥 9:1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말 3:17)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COL 118.2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즉위(卽位)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행 5:31)신 바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불순종하던 생애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믿었다. 그들은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COL 119.1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슥 12:8),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 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COL 120.1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7, 8)고 말할 것이다. COL 121.1

10 장 그물(網)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COL 122.1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看過)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COL 122.2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난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진다. COL 123.1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COL 123.2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禍根)이 되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COL 123.3

11 장 새 것과 옛 것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한편 장래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하셨다.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과가 있었다. 그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비유로써 저희가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을 말씀해 주셨다. 그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COL 124.1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 놓았다. 재산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은 보배로운 것을 새 것과 옛 것, 둘 다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COL 124.2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같은 사실을 비밀에 붙여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과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령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진리의 보화와 은혜가 그들에게 계시되어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나눠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125.1

진리의 큰 보고(寶庫)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 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위인(偉人)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COL 125.2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 과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 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연 과학은 지식의 보고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 곳에서 지식의 보화를 꺼낼 수 있다. 우리가 천연의 미를 명상할 때나 토지를 경작하는 일과 나무의 성장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신기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주는 공과를 연구할 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그의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곳간임이 발견될 것이다. COL 125.3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곳은 성경이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쌓여 있는 곳간이다. COL 126.1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 유대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희생 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신다. 제물을 드릴 때에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 자신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 COL 126.2

제사 제도로 표상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셨고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 주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의 주님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도 되신다. COL 126.3

사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 굴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비길 데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의 주제였다. 그리고 복음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제사 제도가 표상했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COL 126.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제시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가 새로운 빛을 그 진리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 뜻이 얼마나 판이하게 보이는가! 그의 설명에는 빛과 영성이 넘쳐흘렀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계시되도록 하시어 그들이 그 진리를 새롭고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COL 127.1

최초에 에덴동산에서 구속의 약속이 발표된 이후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 사업은 사람들의 연구 제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이 주제를 새롭고 신선한 빛으로 전하였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진리가 비록 옛 것이긴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되어 더욱 큰 영광과 더욱 큰 권능을 계시하여 준다. COL 127.2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 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눅 24:27)었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쳐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COL 127.3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무 힘이 없다. COL 128.1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신 구약을 배척한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COL 128.2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춰 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 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COL 128.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는 제한이 없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샘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사람이 이 신비를 알기 위하여 모든 정신력을 다 쏟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정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며 아무리 열심 있는 연구가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펼쳐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이다. COL 128.4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다만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COL 129.1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구속의 대 주제가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것의 광채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에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다. COL 129.2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儉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COL 129.3

이러한 미덕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생기를 주고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살아 있는, 활동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젊은 패기와 싱싱함과 유쾌함이 서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으며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치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COL 130.1

이러한 경험이 모든 진리의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담긴 이러한 정신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에 능력과 직접성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편협하지 않을 것이며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목사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려 있을 것이다. COL 130.2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살리는 것은 영이니…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54~63). COL 130.3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COL 130.4

충실한 집 주인은 모든 유년 교사들과 청년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 준다.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보화로 삼는다면 그는 새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기쁜 소망과 용기와 성경적 심상(心像)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 주실 때 그는 자기의 교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131.1

성경 말씀으로 교사의 마음속에 터져 나온 하늘의 화평과 기쁨의 샘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감화의 강물이 될 것이다. 성경은 학생들에게 싫증나는 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 있는 교사 밑에서 배우게 되면 더욱더 배우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생명의 떡과 같이 될 것이며 결코 케케묵은 옛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의 신선미와 아름다움이 유년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땅을 비치는 태양같이 끊임없이 광채와 온기를 나눠줄 것이며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COL 132.1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교화(敎化)시키는 성령이 깃들어있고 새롭고 귀한 빛이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진리가 그 속에 나타나 있고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이다. COL 132.2

성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크신 교사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고무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신령한 사물과의 친교가 이루어져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防壁)이 될 것이다. COL 132.3

진리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영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COL 132.4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그 진가를 깨닫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COL 132.5

유대인의 제사 제도의 의의(意義)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복음은 그 오묘를 푸는 열쇠이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앎으로써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한다. COL 133.1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데 대해 핑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하여 말세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3)라고 말씀하셨다. COL 133.2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알아야 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하여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의 입술을 떨게 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충만하지도 아니한가? COL 133.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수천수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이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더 밝은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탐구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더욱 깊은 뜻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있는 연구가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COL 133.4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것이다. COL 134.1

12 장 주기 위하여 구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 14:2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마 20:28) 함이라고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 50:4). COL 139.1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COL 140.1

이 요청에 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산상설교 때에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그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교훈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COL 140.2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 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COL 140.3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 바 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COL 140.4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 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 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주린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으시겠는가? COL 140.5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比較)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對照)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COL 141.1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마 7:7)라고 말씀하셨다. COL 141.2

구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COL 141.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 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COL 14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 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욱 주시지 않겠는가? COL 142.1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을 드러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COL 142.2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COL 142.3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COL 143.1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COL 143.2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換錢) 조건에 맞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 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COL 143.3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또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3~5)고 말한다. COL 144.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카롭고 비그리스도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COL 144.2

기도로써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흔히 등한히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는가?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7, 8)고 말씀하셨다. COL 144.3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의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COL 144.4

그러나 너무나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0~12)고 하신다. COL 144.5

다른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 COL 145.1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COL 145.2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고 말씀하셨다. COL 145.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COL 145.4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COL 146.1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COL 146.2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COL 146.3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대해서도 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는 지력을 예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재치와 재주를 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의 재능을 주의 사업에 바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L 146.4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낙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COL 146.5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彈力性)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불발성이 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0, 31). COL 147.1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시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라. COL 147.2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9:26)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엡 3:2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COL 147.3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고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줄기차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COL 147.4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며 그에게는 변역하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렘 14:21)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 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에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COL 148.1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시고 들어가신다(출 28:29 참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는 늘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신다. COL 148.2

그분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가 열기를 원치 않노라"는 말씀으로 핑계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밤중에 굶주린 영혼을 먹일 떡을 구하는 자들은 받게 될 것이다. COL 148.3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엡 4:7) 주실 것이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 주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그대의 증거가 진실되고 사실일 때 그분은 그 증거를 내세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COL 148.4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COL 149.1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COL 149.2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고후 4:6)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149.3

13 장 두 예배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稅吏)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COL 150.1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사 65:5)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하리라고 생각하였다. COL 150.2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COL 150.3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COL 151.1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COL 151.2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COL 151.3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COL 152.1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막 14:27) 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막 14:29)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自負心)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써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COL 152.2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이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COL 152.3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COL 154.1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 번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고 호소하였다. COL 154.2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사명(使命)을 받았다. 그 일은 지금까지의 사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영혼들을 돌보도록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실 때에 그분은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여 주셨다.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써 자기의 주님을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COL 154.3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COL 155.1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 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단 12:10)라고 하셨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약 1:12 참조). COL 155.2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버린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COL 155.3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는 없으셨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COL 155.4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2)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에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에게 부녀자들이 전달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막 16:7).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용납하셨다. COL 155.5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 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COL 156.1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찔린 몸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 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제물은

완전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의 향연(香煙)에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 이것들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COL 156.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COL 157.1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한다.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조성하고 도야(陶冶)하실 것이다. COL 157.2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사 40:29). COL 157.3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렘 3:13),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겔 36:25)라. COL 158.1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싸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눅 4:18)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눅 5:31)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COL 158.2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7, 18).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COL 158.3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 마음에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도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謙讓)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COL 159.1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 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COL 159.2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COL 159.3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COL 159.4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음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실족하게 한 품성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COL 160.1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COL 160.2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겔 36:31)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곧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겔 16:62, 63). 그 때에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는 사도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것이다. COL 160.3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빌 2:12, 13)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COL 161.1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助手)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며 만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그분께 올라가도록 하라. COL 161.2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거나 나그네처럼 탄식하는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랑한다. 사람들은 웅장한 종교를 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구주를 저희 마음속에서 내쫓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 COL 162.1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COL 162.2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틈에 숨기어져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못에 찔리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출 34:6, 7)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다. COL 162.3

구속 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9).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롬 3:26)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 크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COL 162.4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사 49:7). COL 163.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COL 163.2

14 장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COL 164.1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COL 164.2

이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눈꼽만큼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에게 와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과부는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으나 그 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정에서 쫓겨나곤 했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의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과시(誇示)하고 싶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놔두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일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그 법관이 몹시 냉담하고 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그 법관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호소했다. 마침내 법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하였다. 그 법관은 자기의 신망을 유지하고 자기의 불공평하고 편벽된 재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끈기 있게 조르는 과부의 원한을 갚아 주었다. COL 164.3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대조하셨다. 그 법관은 과부가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기적 목적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 그는 그 과부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고 측은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과부의 불행한 사정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그는 궁핍하고 곤궁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COL 165.1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자들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 불의한 법관은 자기에게 귀찮게 호소하는 과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과부의 가련한 호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 주고 원수를 갚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이다. COL 165.2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신 32:9, 10),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슥 2:8). COL 166.1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ㅡ"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ㅡ라는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사단은 그들의 대적(大敵)이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계 12:10)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 선전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코자 하심이었다. COL 166.2

스가랴서에는 사단의 참소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를 대항하시는 일이 밝히 드러나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슥 3:1~3). COL 166.3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 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 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사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간구자로서 그 곳에 있다. COL 166.4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사단이 땅에서 해 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한 일이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더욱 열성을 내게 될 것이다. 특히 그는 지상에 있는 한 백성 곧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무리들을 볼 때에 몹시 분노하게 된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간계(奸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공박하려고 한다. COL 167.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단은 몹시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절을 버리도록 한다. COL 168.1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낙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롬 3:26)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사단)를 침묵시키신다. COL 168.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그는 당신의 인성(人性)으로써 사람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神性)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진다. 대적 사단은 책망을 받는다. COL 169.1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맹세하면서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하였다(슥 3:3~7). COL 169.2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 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COL 169.3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는 사단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악선전하고 시험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선동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저희에게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수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매 발걸음을 가로막고 괴롭혔는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주님에게서처럼 끊임없는 시험이 따르고 있다. COL 170.1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상태를 말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그 때에 있을 탐욕과 압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부한 자들아…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약 5:1~6).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태를 묘사한 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압제와 강탈의 수단을 동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기아(饑餓)에 허덕이는 군중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고 있다. COL 170.2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사 59:14, 15).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을 받아 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사귀들린 자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의 말을 들으셨다.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려 한다. COL 170.3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비유 속의 법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집행(執行)되고 있던 재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그러한 성격이 얼마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 자신의 재판에서 나타날 것을 보여 주셨다. 그는 또 각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에 처할 때 세상의 통치자나 법관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지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셨다. 때때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와 충고자로 삼지 않고 그들 자신의 성화되지 못하고 수양되지 못한 감정을 따라 행하는 관리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COL 171.1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 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COL 171.2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 시키게 된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 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COL 171.3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COL 172.1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COL 172.2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들의 원수가 자기들을 압도할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라. 그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COL 172.3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받지 않았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히 11:33, 34)다. 우리는 저희의 신앙을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의 보고, 즉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친 보고를 들을 때에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COL 172.4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 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4:6)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시 72:12)라고 하시는 그분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이 들린다. COL 173.1

주께서는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3). 전능하신 자의 팔이 우리를 앞으로,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펴져 있다.

주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구하고 받는 것은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너희의 실패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COL 173.2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 주시는 바 된다. COL 174.1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바 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COL 174.2

사단의 지배 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 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에 여호와께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 37:6) 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COL 174.3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COL 175.1

구주께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에게 측은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 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불요 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COL 175.2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을 넣어 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얍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 주셨다. COL 175.3

하늘 성소에 거하시는 그분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의 기쁨은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무리보다도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COL 176.1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에 대하여 온 우주는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무한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까닭이다. 구주께서는 이 지구를 지혜의 줄로 하늘에 붙들어 매셨는데 이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까닭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함께 거닐며 이야기하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땅을 방문하고 있다. 오늘날 대도시의 분주한 활동 중에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일과 운동경기와 오락이 저희의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무리들이 모여드는 큰 길거리와 시장(市場), 곧 그처럼 번잡한 가운데에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의 파수꾼들과 거룩한 자들이 있다. 그 곳에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감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천사)들이 있다. 모든 사업상의 집회와 오락을 위한 집회와 모든 예배 집회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청중이 있다. 때로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올려서 우리의 생각을 분망하고 바쁜 생활에서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COL 176.2

우리는 이 지구를 방문하는 천사들의 사명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돌보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수종든다. 천천만만이나 되는 힘이 강한 그룹과 스랍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히 1:14)을 받기 위하여 그의 우편에 서 있다. COL 176.3

이러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잔인하고 불의한 모든 행동들과,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된다. COL 177.1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COL 177.2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5~37),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7, 8). COL 177.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애소(哀訴)하는 동안 공의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러나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시 97:2),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1:3)나 그는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나 1:3) COL 177.4

세상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시 73:11)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압박과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 하고 있다. 주께서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며 불의의 증강을 막기 위하여 간섭하실 것이다. COL 177.5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이 땅에서 거의 말살되어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악한 주민(住民)들을 쓸어 버리셨다. COL 178.1

여호와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위기가 올 때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어 사단의 계획의 수행(遂行)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그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들이 위기에 봉착하도록 놔두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당신의 간섭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의 율법을 유지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COL 178.2

우리는 죄악이 성행(盛行)하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 큰 위기가 박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포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간섭하실 것이다. COL 178.3

주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사 26:20, 21).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기만하고 압제할 수 있다. 그들은 과부와 아비 없는 아이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사단과 같은 증오심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약 2:13)한 저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래지 않아 그들은 온 땅의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와 심령에 가한 고통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거짓 참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 먼 지방으로 추방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백성이 받은 모든 고통과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갑절이나 보응하실 것이다. 배도한 교회의 상징인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계 18:5, 6)고 말씀하신다. COL 178.4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여러 섬(島)들과, 소위 그리스도교 국으로 불리는 땅에서 유린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한 채로 오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물의 바다로 이 땅을 도덕적 부패에서 깨끗케 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재주로는 도무지 끌 수 없는 불바다로 하실 것이다. COL 179.1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 12:1). COL 179.2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과 움막과 감옥과 교수대(絞首臺)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산과 들, 토굴과 바다의 굴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궁핍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요구에 굴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다.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시 50:6 (구역)) 날이 매우 가깝다. 그 때에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사 25:8)실 것이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계 6:11; 사 62:12). COL 179.3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 COL 180.1

15 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랍비들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했다. COL 185.1

그들은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가 많고 비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랍비들은 예수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들(랍비)과 섞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외양을 꾸미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참 선지자라면 그는 그들과 교우하고 세리와 죄인 들올 마땅히 냉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늘 그분과 논쟁하지만 그분의 순결한 생애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저들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분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동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랍비들은 성을 내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들의 이기심을 노출시켰다. COL 185.2

종내에는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순결하신 그분의 앞에서면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려 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COL 186.1

그들은 저희의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저희의 조소적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COL 186.2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저들만이 보존자요 해석자라고 자랑하는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서 배울 수 있었다. 큰 죄에 빠진 다윗은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시 119:176) 라고 기록하지 않았던가? 미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진술하였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 COL 186.3

이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청중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경험을 실례로 들어 말씀하셨다. 요단 동편의 넓은 고원지대에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산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숲 속에는 목자들이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는 목자들과 목장 주인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COL 186.4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써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겔 34:12). COL 187.1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COL 187.2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COL 187.3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아흔 아홉 마리가 남아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 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COL 187.4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 나는 그 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 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멘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의 온기(溫氣)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COL 188.1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체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COL 188.2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아흔 아홉마리를 뒤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COL 188.3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이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롬 3:11, 12)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COL 189.1

곁길로 나갔던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목자의 감사함은 기쁨에 넘친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된다. 그는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양의 크신 목자께서 곁길로 나가 방황하는 자들을 찾았을 때에는 하늘과 땅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COL 189.2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 자신의 의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명은 그대들에게 대한 것이 아님을 알라,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늘의 천사들은 너희가 업신여기는 이러한 잃어버린바 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와 연합하면 곧 불평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개선(凱旋)의 노래로 하늘 조정을 울린다는 것을 알라. COL 189.3

랍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될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 (사 28:21)한 일이며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COL 190.1

죄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는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그가 끝끝내 믿음을 지킬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에는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COL 190.2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世界)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 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原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아흔 아홉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아흔 아홉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사 53:5)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COL 190.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3:1).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요 17:18)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채우"(골 1:24)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일을 등한히 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도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COL 191.1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대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그대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 COL 191.2

만일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이끌어 오지 않으면 그 양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 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 완고하고 분수없는 자같이 보일는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전(特典)을 가졌더라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용한 재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 천사들은 이러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그들의 마음은 닫히어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COL 191.3

아, 시험에 빠져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깊고 심금을 울리는 동정심이 얼마나 부족한가!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적게, 훨씬 적게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COL 192.1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평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드러내 놓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다면 그들은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협력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요약된 바로 그 사업에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 COL 192.2

잃어버린 은전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다른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셨다. 그분은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COL 192.3

동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었고 흔히는 창이 없고 방이 어두웠다.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 버린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어야 한다. COL 192.4

신부의 결혼지참금은 대개 돈(硬貨)이었는 데 그는 그 돈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여기고 잘 보존했다가 자기 딸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 중의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재난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다시 찾게 될 때에는 이웃 부인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COL 193.1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COL 193.2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수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찾으면 무척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데 대한 비유이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같지 않은 계급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 양은 목자와 양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심한 시험에 싸여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들이다. COL 193.3

양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이나 산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비록 그것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나 그것을 찾으려면 부지런히 찾아야만 한다. COL 194.1

이 비유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다. 그런데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선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COL 194.2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 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에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COL 194.3

비유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돈을 열심히 찾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방을 쓸었다. 그 여인은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걷어 치웠다. 비록 하나만 잃었을지라도 그 여인은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았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COL 194.4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촛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 빛으로써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바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자신을 살피고 저희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며 우리는 주의 재산을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COL 195.1

외방 선교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다. 저희 자녀들은 구주와 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부모들은 가정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많은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목사나 안식일학교 교사에게 맡겨 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책임을 등한히 한다.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이 일은 참을성 있게 하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위탁된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불성실한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같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구실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COL 195.2

그러나 이러한 태만의 죄를 지은자라도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써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일은 저희가 기쁨으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사 8:18)을 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COL 195.3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정 선교 사업이며 일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다 같이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자들에게도 우리가 가정에서 피차간에 갖는 그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COL 196.1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이루게 하시고자 경영하신다. 우리의 동정심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하여짐에 따라 우리는 어디서나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 인간 가족은 온 세상을 포함하며 이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등한히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COL 196.2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일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COL 196.3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 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OL 196.4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무관심한 태도로 평안하게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클수록, 저희 불행이 심할수록 저희를 회복시키려는 그대의 노력은 더욱 열렬해질 것이며 그대의 동정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대는 고생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과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들을 믿음과 사랑의 팔로 안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들을 보살피고 용기를 주게 될 것이고 그대의 동정심과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독실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COL 197.1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천사들은 그대를 도와서 아무리 무관심하고 완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스랍과 그룹들은 금 거문고를 타며 인간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찬양을 돌린다. COL 197.2

16 장 탕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행한 처지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COL 198.1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COL 198.2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 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COL 198.3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싫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좇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COL 198.4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받기를 원했다. 그는 현재의 낙을 누리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COL 199.1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 "먼 나라"로 갔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이 젊은이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 곳에는 그렇게 하면 네게 해가 될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악한 동무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도록 부추겼다. 그리하여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였다. COL 199.2

성경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롬 1:22) 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는 데 이 말씀이 바로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의 경력(經歷)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재물을 오입하는 일에 다 허비해 버렸다.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러한 일에 허송되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지력(智力)과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 포부 모두가 다 정욕의 불꽃에서 소멸되었다. COL 199.3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지방 사람에게 얹혀살게 되었고 그의 주인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에게는 이 일이 몹시 천한 직업이었다.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죄의 줄에 매인"(잠 5:22) 것이다. 즉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를 매혹시키던 찬란하고 번쩍거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와서는 속박의 쇠사슬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다. 돼지 외에는 다른 아무 친구도 없는 쓸쓸하고 흉년이 든 그 지방에서 그는 땅 위에 홀로 앉아 짐승이 먹는 팥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가 잘 살 때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돈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중에 그의 친구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 버렸는가? 그는 전에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고 의지력은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의 고아(高雅)한 정서는 거의 마비되어 인간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다. COL 200.1

여기에 묘사된 죄인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한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없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롬 1:28). COL 200.2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COL 200.3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렘 17:5, 6).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그러나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 하면 안 맞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해가 비칠 때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으로 "광야 간조한 곳…에 거하"게 될 수 있다. COL 201.1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감화를 끼치고 계시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롬 2:4)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쇠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렘 31:3)고 말씀하셨다. COL 202.1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언한다. COL 202.2

이 젊은이는 돼지 떼와 팥 껍질을 버리고 자기의 집을 향하여 떠난다. 그는 허약해서 비틀거리며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몸으로 결연히 자기의 길을 떠난다. 그는 자기의 누더기를 가릴 옷이 하나도 없다. 그의 가련한 신세가 그의 교만을 꺾었다.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던 그가 종의 직분을 얻으려고 급히 달려간다. COL 202.3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 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드리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직 "상거가 먼데"도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COL 203.1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 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COL 203.2

부친은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하였다. COL 204.1

침착성이 없던 청년 시절에 탕자는 자기 부친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 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던지면 좋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에게 전제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죄인은 시편 기자와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 (시 103:13)도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COL 204.2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사 44:22),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4),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렘 50:20)라고 하신다. COL 204.3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했는가? 그대는 죄악의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그대의 입술에서 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그대는 그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 그대의 일생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대의 소망이 끊어진 채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있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그대에게 속삭였으나 그대가 듣기를 원치 않던 다음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그대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미 2:10).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대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고 초청하신다. COL 205.1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하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다음의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COL 205.2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COL 206.1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실 것이다.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한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슥 3:4, 5)히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사 61:10)으로 그대를 입히실 것이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이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시 68:13). COL 206.2

주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리니 그대 위에 세운 그 기(旗)는 사랑이 될 것이다(아 2:4). 주께서는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 (슥 3:7)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주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COL 206.3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사 62:5), “하나님 여호와가…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 3:17).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하게 될 것이다. COL 207.1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뻐하는 노래 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COL 207.2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勤勞生活) 에서 생기는 소득(所得)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 받은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COL 207.3

그러나 부친은 부드럽게 그 형에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고 말하였다. 네 동생이 방랑 생활을 하던 이 몇 해 동안에 너는 나와 같이 사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COL 208.1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선물(유산)이나 부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COL 208.2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어 그로 인한 기쁨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일소하여 버렸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또한 얻었”노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COL 209.1

이때에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COL 209.2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의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근거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苦行)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COL 209.3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이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받기만 하면 된다. COL 209.4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는 자리에 두게 된다. COL 210.1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미 6:6~8),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신다. COL 210.2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사 58:6, 7)이다.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천부의 사랑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와 참회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COL 210.3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잃었다가 얻"은 자가 "네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 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COL 211.1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COL 211.2

17 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눅 9:56(영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COL 212.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심하게 책망하셨다. 날씨를 미리 알려 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할 줄 알면서도 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다. COL 212.2

그러나 그 때의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것이다. 청중들은 예수님께 그 당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하여 말했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조치들이 백성들을 성나게 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 들어가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봉변당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천벌로 생각했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고한 사람들도 역시 속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그 일을 말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다. COL 212.3

제자들은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저희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과 사람의 좁은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벌을 헤아리는 일에 대하여 날카로운 교훈을 주신 일이 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비난하기를 기대했다. 예수의 대답은 저희를 몹시 놀라게 했다. COL 213.1

주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깜짝 놀랄 재난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 보응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덮치게 될 것이다. COL 213.2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 택하신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방 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그 포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 중의 많은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전 뜰 안에서 바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개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한 죄가 많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COL 213.3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셨다. COL 214.1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 없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노래를 읊은 일이 있었다.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사 5:7)고 말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었다. COL 214.2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장래의 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묘사되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사 61:3) 야곱은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창 49:22, 25)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수가 솟는 샘가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는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사 5:1, 2)으셨다. COL 214.3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사 5:2).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체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결핍되어 있었다.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COL 215.1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폐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맺을 다른

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COL 215.2

비유 속에서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 포도원 주인의 요구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라고 하였다. COL 215.3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COL 215.4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選民)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COL 216.1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거기서 그의 이야기는 중단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졌다.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선고가 발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포도원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다. COL 216.2

발해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의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COL 216.3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비와 햇빛과 과원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COL 217.1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 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시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호 11:8, 9)는 말씀을 외치신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시다. COL 217.2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에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그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승천 후에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다. 거기서 성령을 부어 주셨고 거기서 초대 교회가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나타냈다. 거기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행 6:15)은 얼굴로 주를 증거한 후에 죽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사 5:4)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사 27:3)라고 말씀하신다. COL 218.1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COL 218.2

주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호 14:1~8). COL 218.3

18 장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구주께서 한번은 어떤 바리새인의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다. 그는 가난한 자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으며 그분은 으레 하시던 대로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을 당신의 진리의 공과와 연결시키셨다.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또는 종교적 축제와 연관된 거룩한 절기가 철마다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의 표상이었다. 이방 사람들이 문 밖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될 그 큰 잔치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경고와 교훈을 이제 큰 잔치의 비유로써 예증하셨다. 유대인들은 현세나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멸시한 자비의 초청을 저희가 업신여기고 마치 문둥병자에게 하듯이 저희 옷깃이 그들에게 닿을까봐 상대하기를 싫어하던 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 주셨다. COL 219.1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잔치에 청할 손님을 택할 때 전적으로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또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COL 220.1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교훈을 되풀이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거룩한 축제들 때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 14:29)고 말씀하셨다. 이 집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 했다.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남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기쁨을 배움으로 일 년 내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축제는 보다 넓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영적 축복은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은 그들로 그것을 세상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COL 220.2

저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견책이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다. 그 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경건한 태도로 예수의 말씀의 주제를 돌릴 생각으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이 사람의 태도는 약속된 구원의 조건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이 사람의 정신은 아래와 같이 기도한 발람의 정신과 같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민 23:10).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실제적인 의무에 관한 주제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의 생각을 현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게 될 먼 장래로 옮기려고 생각했다. COL 221.1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선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주목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저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장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COL 221.2

그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종을 올 만한 사람에게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두 번째 기별을 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저희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했다. COL 221.3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다. 밭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 놓았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 역시 이미 사 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세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는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할 때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假面)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이다. COL 222.1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초대 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놓아진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는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했다. COL 222.2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신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동시에 그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주의 사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주의 초림에 대하여 예고해 왔으며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라고 지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COL 222.3

그러나 복음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모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받으실 수 없다. 세속적 사물에 애착을 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수 없다. COL 223.1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그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와 교제하는 일을 세상 친구와 교제하는 일보다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마 10:37)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COL 223.2

그리스도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뗄 때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할 식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셨다.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저희가 은혜로운 초청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 재물과 부와 오락이 저희의 정신을 앗아갔다. 그들은 일제히 핑계대었다. COL 223.3

오늘날도 그러하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들이 댄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된다. 사람들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저희의 세속적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해물이 되고 있다. 그들은 세상 사업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전하는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행 24:25)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 같으면 저희의 사교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친척과 친지와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비유 가운데

묘사된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들의 이같은 신통치 않은 핑계를 당신의 초청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신다. COL 224.1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한 사람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데 지장을 주도록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남편은 "내 아내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나의 소신을 따라 행할 수 없으며 내 아내의 감화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단행하기에 지극히 곤란하게 한다"고 말한다. 아내는 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은혜의 초청을 듣고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사양하나이다. 내 남편이 자비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는 그의 사업이 복음을 받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남편과 행동을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자녀들이 또한 마음에 감명을 받고 나오고자 한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부모를 사랑한다. 그런데 저희 부모가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내가 사양하나이다"라고 말한다. COL 224.2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불화가 생길까 두려워서 구속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저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확보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기주의를 심는 자들은 이기주의의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오직 인간의 사랑을 순결하고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거절한다. 저희는 천국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얻는 일에 실패한다. COL 225.1

비유 가운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자기가 보낸 초청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알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COL 225.2

그 주인은 자기의 초청을 업신여긴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였다.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자들을 초청하였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는 몹시 가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그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에 눌린 자들과 지치고 압제받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분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빛과 기쁨과 화평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깊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자 하신다. COL 225.3

가난한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온 종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보고한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민족 이외의 지역 곧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COL 226.1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6~48)고 말했다. COL 226.2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 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COL 226.3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 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6, 7)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COL 227.1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COL 227.2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COL 228.1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COL 228.2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COL 228.3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COL 228.4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會衆)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 COL 229.1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존중히 대하셨다. 그같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기별이 수천 명에게 퍼진 일이 종종 있었다. COL 229.2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겨우 그 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에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COL 229.3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는 예언의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시하는 표상적인 봉사(제사 제도)를 위탁받은 백성들이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자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은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저희가 그 초청을 거절했을 때 그 초청은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소경들에게 보내졌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복음의 초청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이 진행된다. 이 기별은 먼저 "큰 길" 곧 세상 사업에 크게 활약하는 자들과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COL 229.4

주의 종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양 무리의 목자들, 곧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들이 마땅히 명심해야 할 말씀이다.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친절한 애정과 형제우애로 찾아야 한다. 실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뛰어난 발명력과 과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현 시대에 대한 특별한 진리를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초청의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 COL 230.1

부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위탁받은 자로서 저희의 책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자와 반드시 회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해 일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만을 믿고 닥쳐올 위험을 생각지 않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이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신 참된 행복의 원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COL 230.2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해 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이 이러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그가 변호사나, 상인이나 혹은 재판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낭떠러지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상관하지 않고 지체 없이 뒤로 물러나도록 소리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희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지체 없이 말해 주어야 한다. COL 230.3

어떠한 사람이든지간에 그가 세상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세상의 허무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마음과 친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COL 231.1

복음 사업의 성공은 유식한 답변이나, 웅변적인 논증이나, 심오한 이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별의 단순성과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것을 주는 데 달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이 곧 영혼의 요구이다. COL 231.2

많은 사람은 매우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곧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재능을 소유한 남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흥미를 갖는 사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순하고 솔직한 말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 COL 232.1

미리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별로 감화를 주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말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표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해 닫혀 있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COL 232.2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그는 기도로써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며 봉사하는 천사들은 그의 옆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COL 232.3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였던들 저희의 도성은 얼마나 훌륭한 선교 중심지가 되었겠는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거대한 진리의 군대가 주를 위하여 이 성에 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복음 기별을 세계 각처에 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력 있고 재능이 있는 유용한 일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모아들이고 구원의 기별을 원근 각처에 전파하는 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복음의 초청은 신속히 전파될 것이고, 주의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몰려올 것이다. COL 232.4

우리는 빈천한 계층의 사람들은 등한히 하면서 위대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자들에게 골목과 산울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셨다. 궁정(宮廷)안과, 큰 도시의 골목길과 시골 외딴 길에는 교회와의 연락이 전혀 없이 고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가족들과 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곤경에 처해있다. 그들은 고난, 궁핍, 불신, 실망에 짓눌려 있다. 각종 질병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위안을 찾고자 갈망한다. 그러나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희 입술에서 재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그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COL 232.5

우리는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러 오신 대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보내는 그의 초청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1~3)라는 말씀이다. COL 233.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능력이 부족한 외인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종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매우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구원할 가능성은 있다. COL 233.2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셨다. 이 일이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대들이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덜어 줄 때에 그들의 심령의 요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가리키면서 홀로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크신 의사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COL 233.3

바른 길을 떠나 절망 중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그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라. 비록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올바른 품성을 조성하지 못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 곧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장차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고쳐서 깨끗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라. 주의 식탁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그들을 그 자리에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 주라. COL 234.1

골목길과 산울로 나가는 자들은 그들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같지 않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받은 모든 빛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더 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더욱 큰 지식을 갈망하지만 겨우 그 큰 빛의 희미한 광선을 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앞을 분간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대도시 가운데서 발견된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매우 비천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목사와 교인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천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증인들이다. 비록 저희가 별로 많은 빛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수양을 받을 기회도 별로 갖지 못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추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의 필요를 도와주어야 한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양식이 될 귀한 기별을 주실 것이다. 귀한 축복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전해질 것이다. COL 234.2

비유 가운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한 명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초청의 긴급성과 권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나타낸다.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복음 기별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사 55:1),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께로 나아가게 한다. COL 235.1

구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물러가시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그분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호 11:8)하시면서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비록 마음이 완고한 자들로부터 그분의 사랑이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분은 반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는 말씀을 더욱 힘 있게 호소하신다.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분의 사랑의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라고 말하게 된다. COL 235.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에 가지셨던 그같은 애틋한 사랑을 당신의 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만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다. 오라는 초청을 듣지만

그들의 귀가 너무나 둔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눈은 너무 흐려져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된 온갖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말하기를,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라고 한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들은 단념해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낙망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그대의 용기와 그대의 소망과 그대의 힘을 불어넣어 주라. 친절로써 그들이 오도록 강권하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유 22, 23). COL 235.3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 줌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지난 세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존 번연은 독신(瀆神)과 방탕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존 뉴턴은 노예 매매자의 처지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전파하였다. 오늘날에도 존 번연과 같은 사람과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많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별로 이렇다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같은 말이 임할 것이다. 완고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아보신 까닭에 저희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악한 죄와 허물 속에서 나와 일찍이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그분의 보좌 다음에 서게 될 것이다. COL 236.1

그러나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히 12:25). 예수께서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으므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바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OL 236.2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그대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는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호 4:17)는 말씀이 그대를 두고 기록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눅 13:34, 35)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시지 않도록 하라. COL 237.1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의 빗장을 빼고 문을 열려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또 다른 영혼이 복음 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거문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COL 237.2

19 장 용서의 한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물었다. 랍비들은 용서하여 주는 일을 세 번까지로 제한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완전수인 일곱 번까지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는 일에 결코 싫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COL 243.1

다음에 그분은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와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의 위험을 보여 주셨다. 그는 비유로써 한 왕이 자기 나라의 국사를 맡아보는 신하를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신하들 중 더러는 많은 국고금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맡긴 돈의 관리 상황을 조사했을 때 한 사람이 일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것이 드러났다. 그는 왕의 앞에 끌려 나왔다.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그 당시 풍습을 따라 그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 명령을 듣고 떨면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고 탄원하였다. COL 243.2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COL 244.1

이 비유는 사건을 충분히 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 비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 세세한 부분에 정신을 팔지 말아야 한다. 이 비유에는 커다란 진리가 설명되어 있는 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한다. COL 244.2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신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시 130:7). COL 244.3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COL 245.1

비유 가운데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연기해 주기를 간청했을 때에 그에게 내린 선고는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에게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모본을 따를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빚을 탕감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났다. 그는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반면에 그의 동관은 그에게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자비로운 대우를 받은 그는 자기 동관을 전연 딴판으로 대접하였다. 그에게 빚진 동관은 그가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탄원했으나 그 결과는 전과 같지 않았다. 바로 조금 전에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 준 자비를 그의 동관을 취급하는 일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는 조금만 더 참아 달라는 동관의 호소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속에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돈 전부를 갚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자기에게서 내렸다가 은혜스럽게 취소된 선고와 유사한 선고를 그에게 그대로 집행해 버렸다. COL 245.2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COL 245.3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일만 달란트 대 백 데나리온, 즉 거의 백만 대 일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COL 246.1

비유 가운데서 주인은 그 빚졌던 무자비한 종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COL 247.1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분께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요구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록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압제하거나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이 태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살후 3:10). 주께서는 힘써 일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들을 부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노력을 적게 하므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난한 자도 있으니 우리는 불행한 자들에게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대접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COL 247.2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래와 같이 분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1~5). COL 248.1

그러나 죄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눅 17:3)하라고 하셨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 줌으로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COL 248.2

성령의 감동을 입어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고 했다. 또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딛 1:10~13)려 함이라. COL 248.3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COL 248.4

우리 주께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앞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만일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의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법정에서 불신자에게 호소하지 말도록 하라. 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려고 힘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복리(福利)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시는 주께 우리의 사정을 맡길 수 있다. COL 248.5

거듭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진저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취급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눅 17:3). 범죄한 형제가 그대의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갈 6:1)하라. COL 249.1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 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눅 17:3, 4)고 하셨다. 그러니 일곱 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곧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용서해 주라는 것이다. COL 249.2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했다. 구주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구속과 중생을 이루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후사가 되도록 역사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COL 250.1

죄에 빠진 자에게 낙심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말라.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억양에 있어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혼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동정어린 마음, 곧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형제가 요구된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붙잡아 주는 동정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고 또 기도합시다라는 속삭임을 듣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대 자신 두 사람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COL 250.2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약 5:20)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COL 250.3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5).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다. COL 251.1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 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COL 251.2

그러나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COL 251.3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써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COL 251.4

20 장 손해가 되는 이익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셨다. 여느 때처럼 제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지 않아 제자들이 참가하게 될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법정에 소환될 것이며 법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다. 군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간교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실증했다. COL 252.1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COL 252.2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산을 양도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는데 그 지시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 받을 때에는 다른 아들들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장자는 갑절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속여 빼앗은 줄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땅히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려 했다. 그러한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면 자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감동적인 호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숙한 견책을 듣고 만일 이러한 명령적인 말씀을 자기 형에게 하신다면 그는 권리를 침해당한 그에게 그의 몫을 주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COL 253.1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교훈을 주시는 도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기질을 드러내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인식했으나 신령한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유산을 얻으려는 것이 그가 골똘히 생각하는 문제였다.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배를 열어 보여주셨다.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벧전 1:4) 받을 후사가 되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거를 보았었다. 이때야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을 크신 선생님께 아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가운데 나오는 쇠스랑을 가진 사람처럼 그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하고 자기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다. 그는 시몬 마구스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평가했다. COL 253.2

이 땅에서의 구주의 사명은 거의 끝나 가고 있었고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데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한 조각의 땅을 쟁탈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떠나 곁길로 들어가실 수 없으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그분은 대답하셨다. COL 253.3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판단해 줄 수 있었다. 그분은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를 아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둘 다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COL 254.1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처리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된다. 그는 열 두 제자를 보내실 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7, 8)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할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인류를 복되게 할 그들의 능력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었다.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은 다 그 근원이 이기심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 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COL 254.2

우리 주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써 이 호소자를 괴롭혀 온 사건과 그와 유사한 다른 모든 논쟁의 근절을 꾀하셨다. COL 254.3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COL 255.1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써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태양이 그의 밭에 비치도록 허락되어 있었다. 이는 태양 빛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같이 비춰 주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꼭 같이 내린다. 주께서는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의 곳간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의 거둬들인 여분의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서 그분의 청지기로 삼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호물자를 나눠 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다. COL 256.1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한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의 물질로 도와주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 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시 68:10). 주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 마음 문을 닫고 그 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다. COL 256.2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시편 기자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COL 257.1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고 살았다.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명한 경영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동리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운 좋은 시민으로 존경 받았다. 이는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시 49:18)수 있기 때문이었다. COL 258.1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전 3:19)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를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을 바라고 기대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경영을 하고 계셨다. 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임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이 있다. 그가 쌓아 둔 재산으로 이러한 사형 집행을 연기시킬 수 없었다.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일순간에 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그의 넓은 토지와 가득히 찬 곳간을 더 이상 그가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시 39:6). COL 258.2

그는 이러한 때에 자기에게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거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인 까닭이다. 이 부자는 영적 사물보다 세상 물질을 택했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COL 258.3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각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이다. 그대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고대 바벨론의 건축가들처럼 크고 굉장한 집을 지을 수도 있으나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높은 성벽이나 견고한 문을 세울 수는 없다. 벨사살왕이 "왕궁에 잔치를 배설하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단 5:4)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왕궁 분벽에 멸망의 선고를 기록했고 적군의 발걸음 소리가 성문 쪽으로 들려왔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단 5:30) 다른 나라의 왕이 그 왕의 위에 오르게 되었다. COL 259.1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 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 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1, 12). COL 259.2

그러므로 주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COL 259.3

21 장 부자와 나사로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 버리는 것이 된다. 죽은 후에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COL 260.1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하여 묘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뒤집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보여 주신다.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으나 하나님께 저희 생애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COL 260.2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 불리려 하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COL 260.3

이 부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불의한 법관으로 대표된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였다. 그는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로 가라고 쫓아 버리지도 않았다. 가련하고 보기 싫은 거지가 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거지가 거기 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COL 261.1

그 당시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당신께서 재물을 맡겨 주신 사람들의 도움과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게 하였다. 이 비유의 거지와 부자도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 나사로는 도움이 크게 필요 되었다. 그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이러한 처지에 있도록 내버려진 반면에 그 부한 귀인은 부족한 것이 없이 호화롭게 살았다.

자기 동포들의 곤란한 사정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COL 261.2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 주위에는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눠 주기를 등한히 함으로 우리가 장차 당면하기를 두려워할 그런 죄과(罪過)의 짐이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다. 모든 탐심은 우상을 숭배한 죄로 선고된다. 모든 이기적 방종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COL 261.3

하나님께서 부자를 당신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았으므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의 의무이다.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18). 부자는 유대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맡은 재물과 재능에 대해 회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주의 축복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으나 그는 그 축복으로 자기의 창조주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였다. 그는 축복을 받은 만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선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지 않았다. 이 부자는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 주신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았다. 그는 지식과 재능을 가졌으나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의 모든 능력을 오락을 추구하는 데 써 버렸다. 그를 두르고 있는 모든 것과 날마다 계속되는 오락과 친구들의 칭찬과 아첨은 그가 이기적 향락에 몰두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봉사 사업에 그분과 협력해야 할 책임감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실행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가 선택한 쾌락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의 시간을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COL 261.4

때가 지나서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바뀔 시간이 이르러 왔다. 가난한 자는 날마다 고생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또 조용히 참아 왔다. 얼마 후에 그는 죽어 장사되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였고 자기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잘 견디어냈다. 그리하여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의 부축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COL 262.1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 나팔 소리가 나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에 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이다. COL 262.2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COL 263.1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意識)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주견에 따라 구성하셨다. 그분은 청중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울을 내거셨다. 그분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신 사상 즉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그분의 소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이용하셨다. 이러한 재물의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다. COL 263.2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저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사람이 2 차의 유예기간을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설명하셨다.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다. COL 263.3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의지하였다. 십자가 상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즉시 다음과 같은 대답이 이르러 왔다. 내가 오늘(굴욕과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지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그분만이 실지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5:31, 4:12). COL 263.4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허비했으며 너무 늦게서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한편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COL 264.1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믿을 만한 좀더 큰 증거를 보여 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는 비록 그런 증거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대답을 들었다. 그의 간청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이 간청은 부자가 마치 만일 당신이 나를 좀더 철저히 경고해 주셨더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러한 뜻이었다. 너희 형제들도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 빛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다.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COL 264.2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역사를 보아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적이면서도 가장 큰 이적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다. 유대인들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매우 놀라운 증거를 보았으나 저희는 그것을 배척하였다.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 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으나 그들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요 12:9~11). COL 265.1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매개자 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에 유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증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COL 265.2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COL 265.3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사이에 교환한 말은 비유적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공과는 각 사람에게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빛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보여 주는 작은 빛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큰 빛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용하는 일에 불성실하고 태만했다는 것을 나타내 줄 뿐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모세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오는 빛을 거절하면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구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요구가 수락된다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COL 265.4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두 사람으로 표상된 두 계급의 사람들이 내세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를 보여준다.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지 않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는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가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 중의 아무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충실한 청지기임을 실증했다. 그는 한평생 재물을 풍부히 가지고 살아왔으나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등한히 했다. 그는 하늘의 보물을 얻는 일에 실패했다. COL 266.1

그처럼 많은 특권을 가졌던 부자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의 사업이 멀리까지 미치게 하여 영적 유익을 끼쳐야 할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죄를 도말해 버릴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줄어 든 가능성과 잃어버린 영적 선물을 다시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다. 재물을 내세로 가져갈 수 없다. 거기에는 재물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궁핍한 동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님께 받은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자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하늘 책에 있는 저희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COL 266.2

부자는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회계 계정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재물은 가지지 못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요청을 등한히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부자가 등한히 할 수 없는 요구를 받게 된다. 그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권세에 의하여 이제 그는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하지 말고 그의 일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한때 부자였던 그는 절망적인 궁핍에 빠졌다. 하늘의 베틀로 짠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결코 그를 가려 줄 수 없다. 한때 홍포와 가장 고운 베옷을 입었던 그 부자는 이제 헐벗게 된다. 그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끝나 버렸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거니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COL 267.1

그리스도께서는 휘장을 거두시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 주셨다. 이 세상 재물에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그대들이여, 이 광경을 자세히 보라. 그대들은 이 광경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신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 37). COL 267.2

유대 국민에게 적용됨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주의 재물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함으로 인하여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단 5:27)는 선고를 듣게 될 가련한 부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부자는 모든 세속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축복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했다. 유대나라 백성도 꼭 이와 같았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정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온갖 영적·물질적 특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타락한 저희의 동포와, 저희 문 안에 있는 외인과, 저희 가운데 있는 빈곤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들은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만 무엇이나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궁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자와 같이, 고난당하는 인류의 물질적·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도움의 손을 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서 저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분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을 의뢰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요 8:33)고 자랑삼아 말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OL 267.3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자 열망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 8:39, 40). COL 268.1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에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영적 관계는 모든 육신적 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님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서 저희 자신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일치시키는 자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된다. 거지는 비록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계급에 속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이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COL 268.2

부자는 비록 인생의 온갖 사치를 누렸으나 너무나 무지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아브라함을 두었다. 만일 그가 그 고상한 특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형성하도록 용납했더라면 그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표상하는 나라도 역시 그러하다. 그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것 같으면 저희의 장래는 전혀 다르게 되었을 것이며 그들은 참된 영적 식별력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증가시켜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교화시키는 데 충분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졌으므로 그들의 전 생애는 그릇된 길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진리와 의를 따라 저희가 받은 선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희의 불성실의 결과가 온 백성을 파멸시켰다. COL 269.1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당신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것을 아셨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리고 백성이 기아와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비유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재해(災害)를 자취했다. COL 269.2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부자의 만년(晩年)의 생애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곧 그릇된 방향으로 개발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요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는 곧 불순종의 골짜기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침례 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 42:1)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경향이 없다. 그는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죄악적인 분위기를 선택한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내려간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기 때문이다(시 146:4; 전 9:5, 6). COL 269.3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모든 기회와 편의(便宜)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못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 COL 270.1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며, 술주정꾼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불신자들로 간주된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제재 조항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이라도 하늘나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COL 270.2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귀한 기회와 거룩한 감화를 감사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행해질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넓은 간격을 만들었다. 저희와 의인들 사이에는 몹시 큰 골짜기가 놓여 있다. COL 271.1

22 장 말과 행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 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COL 272.1

그리스도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진실성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실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남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가…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마 5:47)고 물으신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7)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그에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다. COL 272.2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다. 그는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 마음을 찔렀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런 변명이나 저항도 없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COL 272.3

저희의 공포심이 진정된 후 성전으로 돌아온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감사하는 소리와 찬송의 노래를 들었다.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은 바로 성전 안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로다 하며 노래를 불렀다. 어린아이들의 음성은 크신 의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더듬거리며 불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저희의 편견과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다. COL 273.1

그 이튿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분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라는 질문을 했다. COL 273.2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가 그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그것을 힘입어 말씀하시는 그 권세를 감히 대항할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당신의 병을 고치는 기이한 행사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그는 남이 논박할 수 없는 당신의 권위의 증거를 보이셨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메시야라고 선포하기를 몹시 원했는데 그리하면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잡고 악용해서

백성들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그의 감화를 소멸시키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 COL 273.3

예수께서는 저희가 만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당신의 행위 속에서 신성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주장할지라도 저희가 믿지 않을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실 때에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려는 문제를 피하시고 그들의 비난을 저들 자신에게 돌리셨다. COL 273.4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COL 274.1

제사장과 관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COL 274.2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이 대답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저희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을 깨닫고 저희의 입장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 침례 요한은 저희가 지금 그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자(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그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했다. 침례 요한이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 후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COL 274.3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요한이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면서도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왔다는 말을 감히하지 못했다. 만일 저희가 믿는대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나사렛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한의 증거를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또 저희가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COL 274.4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명령을 했다. 이 아들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라고 하였으나 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둘째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싫소이다"라고 했다. 그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악한 길로 행하며 악한 동무들과 사귀었다.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COL 274.5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교회를 대표한다. 두 아들은 두 계층의 사람을 대표한다. "싫소이다"라는 말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자들로써 믿는 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제재와 순종의 멍에 메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임했을 때에 저희는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COL 275.1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한 아들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성격이 드러났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아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였다. 유대 국민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이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모든 백성은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으나 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율법의 원칙들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저희는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권위와 신령한 능력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 주셨다. 그들은 그 증거를 보고 확신했으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를 계속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6, 9)라고 말씀하셨다. COL 276.1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청중들에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라고 물으셨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둘재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공공연한 비난의 말씀이 떨어졌다. COL 276.2

침례 요한은 진리를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으로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왔다. 이러한 죄인들이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엄숙한 경고를 거절한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으나 이 유식한 자들은 진리의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들에게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야 할 진리가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죄를 기탄없이 범하던 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교사(제사장과 서기관 등)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저희의 완고한 마음은 진리를 받는 데 장벽이 되었다.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물리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COL 277.1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저희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문은 아직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었다. 초청의 기별이 아직도 유효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몹시 바라고 계셨다. COL 277.2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의식에 저희 생애를 바쳤으며 그 의식은 세상 사업과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저희는 저희의 생애가 절대적으로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을 행했는 데, 그렇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경건하고 헌신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저희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언했으나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다. COL 278.1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청중들에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라는 충분한 증거를 그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 광야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말에는 권능이 있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거절함으로써 슬프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길에서 돌아섰다. COL 278.2

유대 나라 지도자들이 공언한 신앙이 참이었다면 저희는 요한의 증거를 받고자 했을 것이며,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회개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저희가 업신여기던 자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었다. COL 278.3

비유 가운데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한 아들은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의 고백이 결국에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 부친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저희의 성결함을 자랑했으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는 그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간교한 궤변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마 23:3)한다고 하셨다.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는 일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저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일을 하기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당신 자신에게서 끊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COL 278.4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서운 기만에 빠지게 되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분과 협력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가겠나이다”라는 말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협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이다. 신실치 못한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한다. 그들은 교회와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서약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말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그 관계를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된 생활을 살고 있다. COL 279.1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뒤로 물러간다. 그리하여 의무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범하는 일이 습관화된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 식별력은 사라져 버렸다. 마음은 완고해지고 양심은 마비된다. COL 279.2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COL 279.3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근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왔다. COL 280.1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COL 280.2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 COL 280.3

잠시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둘째 아들같이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그 거절한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의 솔직성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화된 솔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지만 이 솔직함을 죄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유일의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말라”(히 4:7).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대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COL 280.4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 타락이 따르게 된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하여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COL 281.1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으로 각 사람의 진실성이 시험을 받고 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할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하여 포도원 주인을 위하여 사심이 없이 충성스럽게 일할까? COL 281.2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책에 대하여 지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COL 281.3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2~7). COL 282.1

그대가 그대의 영혼의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동정과 수고를 우리 신자들에게 국한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주의 포도원은 확장되어야 한다. 그분은 세계 도처에 당신의 포도원이 확장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받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의 포도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증거를 보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추방된 그 에덴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포도원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이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신다. COL 282.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충성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라.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기신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모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으며 즐거운 마음과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성취하시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 그는 열두 살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부르심을 듣고 그

일을 맡으셨다. 그는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고 말씀하셨다. COL 282.3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라고 말씀하신다. COL 283.1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계발시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와 같이 저희가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으나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COL 283.2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도 단지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 14:15~24),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 COL 283.3

23 장 주의 포도원

유대 국민

그리스도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첫째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 비유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두 비유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장래를 가리운 휘장을 열어젖히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COL 284.1

그리스도께서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다. COL 284.2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사 5:1, 2). COL 284.3

농부는 들 가운데서 한 뙈기의 땅을 택하여 울타리를 두르고, 밭을 잘 갈아, 손질한 다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곳에 심었다. 농부는 다른 개간되지 아니한 황폐한 땅에 비해 훨씬 비옥한 이 땅에서 그가 땅을 파고 갈아엎고 경작한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세상에서 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사 5:7)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COL 285.1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연 같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와 탐욕과 압박과 가장 저속한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은 부패된 나무의 열매이었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다. COL 285.2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출 33:18, 19, 34:6, 7)하느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였다. 그들은 순결한 품성과 저희의 거룩한 생애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동정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시 19:7) 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어야 했다. COL 285.3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셨다.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COL 286.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고 그는 말씀하셨다. COL 286.2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COL 286.3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내실 때에 그분은 또 한 번 당신의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셨다.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근방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 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위대함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그분의 능력이 자연력을 능가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의 위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이다. 불과 폭풍우와 지진과 사망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종 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신 8:15)을

지나는 길에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는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 양식”(시 78:24)으로 먹여 주셨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신 32:9~12). 그분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다. COL 286.4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였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셨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사 당신을 인정치 않는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기업 즉,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셨다. COL 287.1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다.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 곧 당신의 율법으로 그들을 두르셨다. 이 원칙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 자신을 보호하는 방편이었는데 이는 그것이 저희를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두셨다. COL 287.2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교사이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그분은 계속하여 그들의 교사와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성막과 성전 안에는 그분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있는 거룩한 후광(後光)속에 임재해 있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인내의 풍성함을 나타내셨다. COL 288.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영적으로 유익될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 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COL 288.2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COL 288.3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고 아울러 저희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하게 알려 주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신 7:6, 9, 11~15)리라. COL 288.4

만일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상품의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또 장수로서 그들을 만족케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 주셨을 것이다. COL 289.1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충성함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토지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토지 경작에 관한 지시를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토지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온 땅은 영적 진리에 대한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COL 289.2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있느냐"(신 4:5~8). COL 289.3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야 했다. 가나안 사람 라합과,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는 국경선을 점점 넓혀서 마침내 저희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야 했다. COL 290.1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 땅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분은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COL 290.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찜이뇨”(렘 2:2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빈(空) 포도나무라—영문성경)”(호 10:1),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찜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3~7). COL 290.3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신실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게 되고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다. 모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할까 하노라…또 두렵건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신 8:11~14, 17, 19, 20). COL 291.1

유대 백성들은 이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에 축복이 되지 못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으로써 저희 동포들을 선도(善導)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홍수 전 시대 사람들과 같이 간악한 마음의 생각을 좇아 행했다. 그리하여 저희는 거룩한 것을 소극(笑劇)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렘 7:4)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다. COL 291.2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저희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들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 농부들은 저희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다. 저희는 포도원의 열매를 사사로이 쓰려고 했다. 저희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저희 자신에게 끌려고 시도했다. COL 292.1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는 보통 죄인의 죄와 같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매우 엄숙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저희의 실생활에 엄격하게 실행하겠다고 맹세했으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곡해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강조하였다.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는 랍비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의식을 저들이 다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부주의하게 되었다. COL 292.2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직분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그들에게 맡겨 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편의들을 상습적으로 도둑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당신의 왕국의 법칙을 오해하게 되었다. COL 292.3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길이 참으셨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탄원하셨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저희 죄를 보여 주시고 그들이 그 죄를 자인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원수처럼 대했다. 농부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처음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농부들은 그들에게 더욱더 증오심을 나타낼 뿐이었다. COL 293.1

하나님께서는 최후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저희의 반항심이 그들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L 293.2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끊어 버리고 바른 해결을 위한 그분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농부는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함을 싫어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자기들의 방법보다 훨씬 우수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성공을 두려워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여 주심으로써 그들을 충고하셨다. 이러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격분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견책을 받을 때에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 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바라바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눅 23:18)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마 27: 22)고 물었을 때에 저희는 소리 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요 19:15)라고 하였다. 다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말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고 하였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무지한 폭도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열렬하게 부르짖었다. COL 293.3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 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가 개봉할 때에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COL 294.1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며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의 기초가 너무나 견고하게 보였으므로 저희는 하늘과 땅의 어떠한 것도 저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불성실한 생애로 말미암아 하늘의 징벌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COL 294.2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절정에 달한 그들의 악행을 묘사해 보여 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제사장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비유가 그들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어다”라고 하였다. COL 294.3

그들은 무의식중에 저희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살피시는 눈빛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의 신성이 의심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 번쩍였다. 그들은 비유 중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저희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무심결에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라고 부르짖었다. COL 295.1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고도 애소 띤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COL 295.2

만일 유대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나라의 멸망을 피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그들을 더욱 완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 후 그들의 생애는 한밤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멸망은 예언된 대로 유대 나라에 임했고 제어되지

못한 그들의 맹렬한 격정은 그들 위에 멸망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서로 죽였다. 저희의 반역적이고 완고한 교만심은 로마의 분노를 사게 했다.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성전은 황폐되고, 그 터전은 밭처럼 갈리게 되었다. 유대 백성들은 가장 무서운 살해 방법에 의하여 멸망되고 수백만 명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 COL 295.3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다.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 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COL 296.1

오늘날의 교회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현세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COL 296.2

우리는 값비싼 속전(贖錢)으로 속량함을 받았다. 오직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과 피에 젖은 이 땅에서 귀한 낙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그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COL 296.3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며 그는 항상 자기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권한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타락한 백성으로 나타낸다.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소하는 능력을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참소를 반박하고자 하신다. COL 296.4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모두가 다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COL 296.5

유대 나라 지도자들은 저희의 화려한 성전과 장엄한 종교적 예배 의식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성전의 영광과 성전 봉사의 장엄함이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칙들이 잊힐 때 의식은 많아지고 사치스럽게 된다. 품성 도야가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誇示)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신다. 그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COL 297.1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 COL 298.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성결하고 이타(利他)적인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 그는 사랑과 선의 원칙을 찾으신다. 온갖 예술이 만들어 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나타내는 품성의 아름다움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와 그들의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COL 298.2

어떤 곳에 사는 신자들의 집단은 그 지방에서 가장 가난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외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원칙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저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의 예배에 연합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감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COL 298.3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당신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광야를 지나 여행할 때에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허락들에 곡을 붙여서 저희의 온 여정(旅程)을 통하여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에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도를 “땅위에 알”(시 67:2)려지게 하고 그의 “구원을 만방 중에서 알리”려 하신다. COL 298.4

오늘날에도 그래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비난을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사 43:12). COL 299.1

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사의 표정을 보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유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흰 두루마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하신다. COL 299.2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겪은 경험 중에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성령을 부어 주신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와 기이하신 역사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COL 299.3

이런 경험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 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다. COL 300.1

이와 같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화를 끼칠 것이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COL 300.2

우리는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온갖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성전 봉사를 위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저희는 십일금 외에도 속죄 제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다. 이 예물들은 그 당시 복음 사업을 유지하는 자금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원대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십일조와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마련하셨다. 그분은 이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십일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일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신다. 이 모든 연금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COL 300.3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는 개인적인 봉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각 사람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任命)된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 COL 300.4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저희의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미리암의 음악, 드보라의 용기와 믿음, 룻의 효성, 사무엘의 순종과 충성, 엘리야의 견인불발의 충절, 엘리사의 부드러운 감화력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업에 필요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모든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COL 301.1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COL 301.2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포도원이라고 주장하신다. 비록 이 땅이 지금은 사취자(詐取者)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조에 의해서 뿐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한 선물(독생자)을 통해서 그 밖의 다른 모든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진다. 온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빗방울 하나하나와 빛줄기 하나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내려지고 있으며 모든 나무, 잎들과 꽃들과 과일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증거한다. COL 301.3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인류의 대다수는 누구에게 그들의 생애의 봉사를 바치고 있는가? 그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다. 재산과 지위와 세상의 오락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까지 도둑질해서 치부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의 탐욕과 이기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COL 302.1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온 바로 그 죄이다. 즉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기회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로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들이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고 있다. COL 302.2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셨다. COL 302.3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눅 19:42). COL 302.4

“오늘날”이라고 하신 때는 거의 마치려 하고 있다. 은혜와 특권의 기간은 거의 다 끝나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모여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신속히 임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멸망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려 하고 있다. COL 3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잠에 취해 있다. 사람들은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 COL 302.6

이런 위기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교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자기들의 사명을 이행하고 있으며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지? 교인들은 과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저들의 동포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COL 302.7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의 문명이 저울대에 걸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찍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원대하고 엄숙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 집을 떠나서 인성을 취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교제하심으로 인성을 신성에 이끌리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각이 둔하고 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현시대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COL 303.1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일을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COL 303.2

오늘날의 교회도 이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다. 그들은 먼 지방에까지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새 지방을 점령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거절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 유대인의 교회보다 그 죄가 경할 것인가? COL 303.3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주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열심이 식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애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만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저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이 일에 열중되어 있었다면 더욱 큰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저들 자신과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 책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가려지며, 그분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있다. COL 303.4

그들의 이름이 교회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하에 있다. 그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선도 행치 않고 있다. 저희의 감화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있다. COL 304.1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렘 5:9)느냐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COL 304.2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고 선고하신 자들은 농부들 이었다. 저희 주인에게 토지의 소산을 돌려주기를 거절한 자들 또한 농부들이었다. 유대 나라에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교사들이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만든 자들도 그들이었다. COL 304.3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하셨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랍비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교만심과 사람의 칭찬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 간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분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반감을 갖게 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COL 304.4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르러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COL 305.1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감화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사항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그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과 의식과 관습을 더욱 높인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교만심과 스스로 만족하다는 생각을 조장하고 있다. COL 305.2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COL 305.3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COL 305.4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COL 305.5

하나님의 사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온다. 저희는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이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로써 사랑과 겸손과 자아 희생적 봉사를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과연 많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성을 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 이 교사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사들을 신실하지 못한 종이라고 하신다. COL 306.1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호 8:12)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그분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고 선언하셨다. COL 306.2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 COL 306.3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롬 11:17~21). COL 306.4

24 장 예복을 입지 않음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COL 307.1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 COL 307.2

집주인은 자기의 초청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왕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COL 307.3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쫓겨났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COL 308.1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칠십 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 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다. 그 때에 “큰 핍박”(행 8:1)이 있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COL 308.2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 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써 성취되었다. COL 308.3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COL 309.1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 왔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의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COL 309.2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서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COL 309.3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계 22:12)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COL 310.1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COL 310.2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계 19:8)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COL 310.3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COL 310.4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써 저희 죄를 가리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가납되게 하려 했다. COL 311.1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COL 311.2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계 3:18) 하라고 하신다. COL 311.3

하늘 베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사 64:6)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요 15:10)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COL 311.4

혼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복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COL 312.1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 준다. COL 312.2

예수님은 협잡꾼이 아니며 성경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비록 우리가 천하 인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 녹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COL 312.3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 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점일획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COL 314.1

신의 성품을 나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COL 314.2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마 5:17, 18)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COL 314.3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COL 314.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COL 314.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寫本)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COL 315.1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COL 315.2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냄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좇도록 내버려 둔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COL 315.3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생애를 살기로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 의로운 척한다. 그러나 이같은 그들의 노력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COL 316.1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COL 316.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 3:16) 하셨을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체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COL 316.3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COL 316.4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큰 심판 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COL 317.1

현시대에 소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고상한 특권이 위탁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에게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체로 주어졌다. 저희는 구약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약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초림하신 구주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요셉의 빌린 무덤에서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구주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는 설교 가운데 나타나 계시고 찬미 속에서 찬양을 받고 계시다. 풍부한 영적 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COL 317.2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COL 318.1

최후의 결정의 날은 엄숙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1, 12). COL 318.2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거 행실을 회고해 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희의 전 생애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의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의 지배를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가 선택한 옷은 최초의 배도자 사단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표지(標識)가 된다. 그 때에 그들은 저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COL 318.3

그 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다. COL 319.1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그 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COL 319.2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6:15). COL 319.3

25 장 달란트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그분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 줄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다시 반복하여 경고하셨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써 가르쳐 주셨다. COL 325.1

그분은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셨다. COL 325.2

이 비유 가운데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때는 바로 조금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려던 때였다. 여기에 "종들", 혹은 노예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고전 6:20)로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벧전 1:18, 19) 산 것이니 이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5). COL 325.3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 회계(會計)해야 할 것이다. COL 326.1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난 자들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COL 326.2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COL 326.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 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무를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COL 326.4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8~11).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들 각자에게 어떤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COL 327.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눅 24:49)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았다. 그 때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 4:7),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11).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지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다. COL 327.2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COL 328.1

다른 달란트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COL 328.2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 달란트는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다섯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게 된다. 두 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게 된다. 한 달란트만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는다. 아무도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후 8:12)신다. COL 328.3

달란트의 사용

비유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다. COL 329.1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계발해야 한다. COL 329.2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현세에서 가장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날마다 같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COL 330.1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COL 330.2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器管)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지적·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COL 330.3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방면으로 능률과 재능이 자라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일하여야 할 것에 대한 모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하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요 3:16)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최대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COL 330.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COL 331.1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COL 331.2

하나님께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COL 331.3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COL 331.4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大望)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COL 332.1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COL 332.2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계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OL 332.3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COL 332.4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 수 있는 것들이다. COL 333.1

지능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계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COL 333.2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계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원만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COL 333.3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천부께서만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가장 높은 이 세상 권세자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지적(知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COL 333.4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착수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하여 그것을 개척하라. 닥치는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도록 하라. 절약하라. 그대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 있고 유능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라. 그대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라.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온갖 이점과 특전을 이용하라. 서적의 연구를 유용(有用)한 노동과 연결시키고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334.1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기 수양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교육은 대학에서 줄 수 있는 교육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과학을 연구하는 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나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맺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고상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그들의 교과서로 삼고 크신 교사와 교통하도록 하라. 신령한 진리를 탐구할 때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도록 마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라. COL 334.2

저희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들의 지력은 열심 있는 활동을 하도록 깨우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재능은 넓어지고 계발될 것이며, 정신은 능력을 얻고 유용하게 될 것이다. COL 334.3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같은 수양이 웅변이나 그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하면, 자제력이 없는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유능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COL 335.1

언어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COL 335.2

지성인들과 그리스도인까지도 음성을 수련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다. 다른 사람이 얼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게 또는 너무 빨리 말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들은 둔탁하고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 또 어떤 이들은 듣는 사람이 짜증스러울 만큼 너무 높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하는 자들도 있다. 성경절이나 찬미가나 보고서 등을 공중 앞에서 낭독할 때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낭독함으로 인하여 그 집회가 힘이 없어지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COL 335.3

이러한 폐단은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성경의 지시가 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느 8:8)였다. COL 335.4

누구나 다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똑똑하고 거침이 없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하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게 하는 재간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COL 335.5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알려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 COL 336.1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잘 훈련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COL 336.2

이것은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봉사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모든 목사와 교사들은 저희가 영생에 관계되는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희가 말한 진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이다. 그런즉 말할 때에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에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COL 336.3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는 물론 피차 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시 45:2),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사 50:4)하심이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골 4:6) 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엡 4:29)기 위함이다. COL 336.4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 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이다. COL 337.1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엡 4:29)라고 기록 하였다.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순한 말이 즉시로 배격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COL 337.2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져 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COL 337.3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수양에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생활이다. 자녀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와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도록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온순하고, 참되고, 순결한 말만이 저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과 모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딛 2:8)을 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이 부모들의 의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책임이다. COL 337.4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사욕이 없는 목적, 경건과 성결에 대한 갈망 등이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 그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COL 338.1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타셨을 때나, 바리새인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셨을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 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청중의 마음은 그분에게 이끌리었으니 이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이들을 그의 팔에 안고 복을 빌어 주신 연고이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COL 338.2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 사람에 뛰어난”(아 5:10) 자이고, “그 전체가 사랑스”(아 5:16)러운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써 말해야 한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말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구주로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COL 339.1

감화력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감화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에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COL 339.2

사람은 각각 자신의 분위기 곧 생명력을 주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달콤한 사상의 향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불만과 이기심으로 침울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품고 있는 죄로 인하여 몹시 오염된 유독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COL 339.3

이러한 감화에 대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을 진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끼친 감화가 선악간에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전달된 충동은 반드시 수확하게 될 씨앗이 된다. 이 충동은 우리가 그 범위를 알 수 없는 인간사(人間事)의 긴 사슬의 하나의 고리가 된다. 만일 우리가 모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한 원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과 같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같은 감화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의식중에 주는 감화로 인하여 여러 천만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COL 339.4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波紋)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圓形)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감화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알고 조종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COL 340.1

품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다. 우리의 감화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COL 340.2

그러나 감화력은 이에 못지않은 악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감화력이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들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으로 부터 흩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가 매우 연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남을 비평하고 비난한다. 그들은 의심과 질투와 불만을 표시하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적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나쁜 인상이 나타나고 그늘이 드리우고 사단의 화살이 과녁에 적중된다. 그리하여 불신임과 불신과 철저한 무신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된다. 동시에 사단을 위해 일한

자들은 저희가 만든 회의론자(懷疑論者)들과 책망과 권면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 자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덕이 있고 의롭다고 우쭐댄다.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이처럼 비참하게 파괴된 것은 그들의 재갈 물리지 아니한 혀와 반역적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감화 때문에 이들이 시험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다. COL 340.3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경박, 이기적인 방종과 부질없는 냉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가 끼친 감화의 결과를 보기를 두려워할 자들이 많이 있다. COL 341.1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이 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한 시간이나 한 순간의 일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 하루도 우리의 길을 천부께 맡기지 않고는 그 날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사의 보호에 맡긴다면 위험할 때마다 저희가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중에 좋지 않은 감화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옆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혜를 주고, 적절한 말을 하게하며, 우리의 동작을 다스려 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화가 비록 소리도 없고 의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COL 341.2

시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COL 342.1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COL 342.2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 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다. COL 342.3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단 일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COL 342.4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된다. 그는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된다. COL 342.5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금전만 바치면 그것으로써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주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헛되이 지내버린다. 그러나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금전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 COL 343.1

일분일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 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눅 12:20)라고 말씀하실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태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주를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큰 심판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COL 343.2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의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성경은 게으름을 시인하지 않았다. 게으름은 세상을 괴롭히는 최대의 저주이다. 참으로 거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COL 343.3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능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빈곤이나 신분의 비천이나 역경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일분일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확고한 목적과 불요불굴의 근면함과 주의 깊은 시간의 절약이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게 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 있고 유용한 지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줄 것이다. COL 343.4

질서 있고 철저하고 민첩하게 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일을 더디고 서툴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한 성격의 일이든지간에 핑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항상 일을 하고 있는 데도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기지(機智)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 시간에 할 일을 다섯 시간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 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느릿느릿하고 우물거리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일을 크게 만든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같은 우물거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일할 때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지력을 작용시키면 손도 민첩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COL 344.1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옳지 못한 습관이 그대로 굳어 버릴 수 있는 반면에, 저희의 능력을 잘 계발시킴으로 가장 고상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떤 곳, 어떤 장소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실력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COL 344.2

많은 유년과 청년들이 가정에서 책임을 나눠짐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해 버린다. 청년들은 다른 사람이 져야 할 많은 책임들을 저희의 튼튼한 어깨에 질 수 있다. COL 345.1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려서부터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았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오히려 당신의 부친 요셉과 같이 목수 일을 하셨다. 그분의 직업은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다. 그분은 품성을 건설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완전하셨던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COL 345.2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시간의 가치와 시간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일을 힘써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가 될 수 있다. COL 345.3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렇게 둔다면 자녀들은 쉽게 게으름뱅이가 되고 나아가서는 무능하게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저희가 장차 자라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도 그들은 자기 일을 게으르고 느리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신실하게 일했을 때에 받게 될 보수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일꾼들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COL 345.4

세상일에 나태하고 부주의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들이 저희 신앙 생애에 재현되어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능률적인 봉사를 하기에 적합지 못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부지런히 노력했더라면 세상에 축복이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인하여 파멸되었다. 그들은 하는 일이 없고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만 가지 시험을 초래한다. 악한 친구들과 못된 습관이 그들의 심령과 정신을 부패시켜 그 결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파멸될 뿐 아니라 내세를 위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COL 345.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고 가르친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 9:10).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4). COL 346.1

건강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정신적·육체적 능률이 주로 그것에 달려 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COL 346.2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진다. COL 346.3

우리의 체력을 잘못 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종함으로써 허약의 기초를 닦는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심신을 과도히 사용함으로 신경계통에 균형에 잃게 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동포들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라고 하신 일이 저희의 실책으로 중단되고 만다. 저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를 수 있었던 일까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의 악습으로 인하여 주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다. COL 346.4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자연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器管)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된다. COL 347.1

주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서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과목을 가정과 학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육체에 대한 법칙을 고의로 배우려하지 않고 그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COL 348.1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COL 34

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에는 육체적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COL 348.3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사물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있어서도 참된 일꾼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하셨다. 하늘과 땅의 사물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욱 완전히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 있다.

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계도를 주셨다.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상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존경을 받게 될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의 건축 기사이셨다. COL 348.4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주께서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출 31:2~6)라고 말씀하셨다. COL 349.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당신의 교역자들이 그분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모든 올바른 발명과 진보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奇事)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의사가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어루만지는 기술과,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오묘한 신체의 조직에 대한 지식은 병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수가 망치를 쓰는 기술과 대장장이가 모루를 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시고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신다. COL 349.2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외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 COL 349.3

하나님께서는 이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 COL 350.1

건물을 지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만일 교역자들이 인격 형성에 바른 원칙을 적용했더라면 저희가 건설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COL 350.2

그러나 아무리 큰 재능이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라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납하시지 않으신다. 뿌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COL 350.3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요셉을 영민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셨다. COL 350.4

다니엘의 실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 실례는 사업가는 반드시 교활한 수단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다니엘은 걸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대신인 동시에 하늘로부터 영감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속적 야망을 가진 정치가들은 자라나는 풀과 같고,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각 분야의 사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갖고자 하신다. 진리의 대 원칙을 그들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면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지혜롭고 능률적인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저희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업무처리 상태를 엄격하게 조사해 봤지만 단 하나의 흠이나 실책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사업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표본이 된다. 그의 역사는 두뇌, 뼈, 근육, 마음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COL 350.5

금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 주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하늘의 이슬과 산뜻하게 하는 소나기로 땅에 물을 대신다. 그분은 땅을 따스하게 하는 햇볕을 주심으로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고 초목을 무성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것을 당신께 돌리기를 요구하신다. COL 351.1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써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 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푼한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COL 351.2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주린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COL 352.1

아껴 모아서 사장(死藏)해 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저줏거리다. 그 재산은 이생에서 하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된다. 하나님의 큰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와 등한히 한 기회를 들어 그것을 소유했던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1~4). COL 352.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조심성 없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6:12)고 하신 절약에 대한 그분의 교훈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절약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COL 352.3

모양을 내고 방종하는 데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자금은 더욱더 부족하게 된다. 쓸데없이 허비된 모든 돈이 그것을 허비하는 자들로부터 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재간을 개발함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버린다. COL 352.4

친절한 마음과 애정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과 애정과 영적 사물을 빨리 깨닫는 이해력 등은 귀한 달란트인 동시에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장점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이런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좋으면 그들은 큰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궁핍한 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의 편협함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그같이 인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그가 잘못 사용한 달란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희는 자기 자신과 이러한 편협한 자들을 비교해 보고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자질은 그들의 책임을 더 중하게 할 뿐이다. 남보다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애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다. 사교성(社交性) 또한 달란트로 볼 수 있다. 이 달란트를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사교성을 이용하지 않고 버려두는 사람은 저희가 인색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주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았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COL 352.5

달란트는 활용함으로 증가됨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된 희생을 기울임으로 우리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COL 353.1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겸손한 교역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처럼 크고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가장 고상한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요하며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되며, 그의 노력이 얼마나 단호하게 되며,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놀라게 된다.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사람은 온 하늘의 보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빛을 나눠 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COL 354.1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COL 354.2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力量)에 따라 평가된다. 이 지식은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연결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COL 354.3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寫本)이 되는 품성을 계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CO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COL 355.2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에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저희가 어떤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서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한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등한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종임을 증명했다. 이것으로 보아 그가 비록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감추었던 것처럼 역시 땅에 감추었을 것이다. 그가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하늘의 선물을 멸시했다는 증거이다. COL 355.3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눅 16:10)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는 사실상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COL 356.1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의무에 불충실함으로써 저희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봉사를 돌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충실함의 영향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 생활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실족하게 된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COL 356.2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장차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고관들과 접촉하게 하신 것은 이 이방 사람들이 참 종교의 원칙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그처럼 영예롭고 책임이 큰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몹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므로 주님께서 그와 협력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단 1:17)도록 하셨다. COL 356.3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큰일에는 물론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COL 357.1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작은 일을 신중히 하라는 공과를 가르쳐 주셨다. 구속의 대사업은 항상 그분의 마음에 짐이 되었다. 그분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그

일에 당신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정력을 다 쏟으셨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일상 생애와 천연계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을 주목해 보셨다. 그분의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그가 천연계의 가장 단순한 사물들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의 궁핍함도 못 본 체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귀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믿음으로 살짝 건드린 그 여인의 행위는 응답을 받았다. 그분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의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입었던 수의(壽衣)를 개서 적당한 자리에 놓으셨다. COL 357.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은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웠다.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충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일에 충실하시고 양심적으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력하고 감화를 끼치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COL 358.1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재능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경륜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능에 있어서나, 총명에 있어서나,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COL 358.2

그러나 천부(天賦)의 재능을 많이 받지 못한 자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들로 저희에게 있는 것을 선용하고 저희 품성 가운데 약점이 무엇임을 살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것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모든 면에 진실함과 충성심을 나타내도록 하고 또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질을 잘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COL 358.3

태만한 습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저희의 건망증으로 돌리면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저희의 정신이 강화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태만히 하는 것도 죄이다. 그대가 만일 태만히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대는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다. COL 358.4

큰 진리는 작은 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신앙 원칙이 매일의 생애의 사소한 일에도 실천되어야만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만 자기가 하는 일에 최대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 COL 359.1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종교적인 사업에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생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희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면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대가족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나 축복이 된다. 신실하게 그 일을 함으로 앞으로 더욱 고상한 일을 맡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COL 359.2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큰 봉사로 받으실 것이다. 성의를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연금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COL 359.3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의무를 행하라고 명하신다. 만일 이 의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정을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욕을 돋우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대가 음식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할 때, 마음에 가장 좋은 사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만일 그대가 밭을 경작하거나 그 외 어떤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일에 성공하도록 하라. 그대가 하는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으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입장에 서 계시다면 응당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행하라. COL 359.4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加算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乘算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COL 360.1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 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 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왜냐 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OL 360.2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저희에게 어떤 큰 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저희의 야망을 만족시킬 큼직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범한 일은 저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일 기회를 놓쳐 버린다. 저희가 어떤 큰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으로써 할 바 일을 마치지 못한 채로 저희의 한평생이 지나가 버린다. COL 360.3

반환된 달란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회계하실 때에 달란트에 대한 반환금을 엄밀히 따지실 것이다. 이루어진 일이 그 일을 한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게 된다. COL 360.4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자신들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희의 달란트는 저희가 받은 것이었다. 저희가 다른 달란트를 더 남겼으나 원금이 없었더라면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는 다만 자기들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원금이 주님의 것이었으므로 이익금도 그분의 것이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일은 영원히 파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COL 360.5

그러나 달란트를 받으실 때 주인은 그 공로가 모두 종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갚아 주셨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 주인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기뻤다. 주인이 그들의 모든 봉사와 희생에 대하여 갚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 그들에게 빚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사랑과 친절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었다. COL 361.1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라고 말하셨다. COL 361.2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 책에 기록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일꾼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COL 361.3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마 20:28)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더욱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COL 361.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COL 362.1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등한히 여긴 것을 핑계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희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각박하고 압제적인 분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요, 심지 않은데서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비난한다. COL 362.2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와 봉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은 각박한 주인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다윗왕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 29:14)라고 말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하시는 각박한 주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COL 362.3

악한 종의 비난은 전혀 당치 않은 것이었으나 주인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취하셔서 그의 행위가 전혀 핑계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게 할 온갖 방법과 수단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주인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말하셨다. COL 362.4

우리의 천부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4).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다. COL 362.5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 우리 각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일점이라도 적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신다. 사용하지 않은 재능에 대해서도 선용(善用)한 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었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COL 362.6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COL 363.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질 짐 때문에 불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인색한 주인으로, 일할 능력도 주시지 않고, 덮어 놓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COL 363.2

우리는 게으른 종의 정신을 겸손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겸손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포부가 신통치 않고 살아가는 데 겁이 많고, 실패가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COL 363.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때때로 그분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이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에 따라 갑은 크고 을은 작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재능을 평가하고, 우리의 일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지도록 정해 주신 일을

짊어지고 그분에게 나아가 쉼을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인정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COL 363.4

빼앗긴 달란트

게으른 종에게는 아래와 같은 선고가 내렸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선고에도 신실한 종에게 상급을 주실 때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에 받을 보상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점진적으로 받게 될 보수에 대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계(靈界)에서도 그러하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 버린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과정을 걷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COL 364.1

어느 누구도 이기적 생애를 살고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에 저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 그들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순결한 사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천사들의 노래와 거문고 소리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과학은 일종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COL 364.2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COL 365.1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 듣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나오는 불충실한 종과 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를 받을 때에 놀라게 된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저희의 축복을 마땅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저희만이 누리고 있다. COL 365.2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할 능력이 없는 그처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무능력은 저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그들이 고의(故意)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그들의 품성 속에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의 결과를 보게 된다. 저희의 달란트를 계속해서 오용(誤用)함으로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선고는 그들이 선택한 영원한 운명에 하늘의 인을 찍는다. COL 365.3

26 장 불의의 재물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기었고,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다.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COL 366.1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 있게 만드는 마력(魔力)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셨다. COL 366.2

그분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종은 신실하지 못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종이 보던 회계 일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 종을 불렀다. 그 주인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COL 366.3

파면 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취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하였다.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COL 367.1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의 불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였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봄으로 그를 저희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COL 367.2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 이욕에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COL 367.3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실례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셨다. 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COL 367.4

구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려 있었다. 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범죄로 타락하는 속도는 빨랐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세리들 가운데는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한 이 비유에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COL 368.1

그러나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진리의 누룩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진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부분의 교훈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때때로 그 교훈이 거의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진리들이 그 후에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COL 368.2

구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이 점차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감화 아래서 진리를 듣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COL 369.1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책잡아 그분의 인망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책잡는 자들에게 돌리셨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사귀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바리새인의 행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저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리새인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다. COL 369.2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이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청지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물을 자신들을 부(富)하게 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다. COL 369.3

자부심과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선물을 오용(誤用)했던 것이다. COL 369.4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 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 놓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에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 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COL 369.5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감화력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겨 주셨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곤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린 바 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빵을 위해 애걸하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눅 12:33)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전 6:18),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눅 14:13),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 주어라.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사 58:6, 7, 10)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큰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COL 370.1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지고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 COL 371.1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그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5, 8, 9), "부한 자들아…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1~3, 5, 4)고 하신다. COL 371.2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선물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날에는 사람들이 쌓아 두었던 재물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COL 372.1

세상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행한 것 이상으로 저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지혜가 부족했고 생각이 모자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을 나타내게 된다. 이 시대에 있어서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계시 중에서 본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사 2:20, 21)고 한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COL 372.2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 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COL 373.1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COL 373.2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빼앗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숙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다. COL 373.3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린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왔다가 가곤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줄어든다. 길게 잡아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네 보던 일을 셈하라"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COL 373.4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신다.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 저울 한쪽에는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와,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구속 받은 영혼들을 놓고 다른 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놓아라. 또 한편 저울에는 잃어버린바 된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조력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의 영혼들을 놓고, 다른 편 저울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대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하여 달아 보아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라고 말씀하신다. COL 374.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택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최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회귀케 하리로다"(사 13:12)라고 말씀하신다. 좀이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린 바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부를 즐기게 될 것이다. COL 374.2

이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COL 374.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맡겨 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눅 6:38),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전 6:17~19)고 하신다. COL 374.4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 두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COL 375.1

27 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라는 질문은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외인이요 원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희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며 여러 같지 않은 계급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장로들은 누구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이 “깨끗지 아니한 자”들을 이웃으로 여겨야 했는가? COL 376.1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써 대답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COL 376.2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짐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책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답을 열심히 들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변론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대답을 끌어내셨다. 그분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다. 그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COL 377.1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COL 377.2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흥미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질문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의식적 율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의문의 율법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두 큰 원칙을 제시했다.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칭찬하심으로 랍비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셨다. 왜냐 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해석자가 주장한 것을 시인하심으로 랍비들이 그분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COL 377.3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으며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COL 377.4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378.1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네 계명뿐 아니라 마지막의 여섯 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핑계하려 했다.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던 것이다. 구주의 말씀은 그의 질문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셨는데 이는 그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COL 378.2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논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그분은 청중들의 마음에 기억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하셨다. 그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이야기 하셨다. COL 379.1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유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길은 황무지를 지나 바위들이 많은 산골짜기로 나 있었다. 그 길에는 때때로 강도가 출몰했으며 난폭한 사건이 벌어지곤 했다.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그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얻어맞아 많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음에는 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발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았으나 그 일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차라리 그리로 오지 않았더라면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일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자위하면서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COL 379.2

그러나 그 같은 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몸소 행했다. 그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하였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했으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었음을 증거해 주었다. COL 379.3

그리스도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에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율법의 원칙을 제시해 주신 동시에 그 청중들에게 저희가 이 원칙들을 실행하는 일에 태만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예리했으므로 청중들은 책잡을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율법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책잡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그의 편견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민족적 편견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므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씀으로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COL 380.1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부드러운 친절로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가 온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COL 380.2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차이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써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요 4:9)라고 말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죽이고 싶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성전에서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한"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요 8:34)는 말보다 더 적절하게 그들의 증오심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등한히 하고 저희가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저희 나라 백성을 돌보도록 버려두었다. COL 380.3

그 사마리아 사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키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요 15:17),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다. COL 381.1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길가의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 준다면 저희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등한히 했다. COL 382.1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커다란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위 작은 일들이다.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들은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맡겨져서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품성은 훼손되고 그리스도교는 오해를 받게 된다. COL 382.2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저희의 위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이 황폐된 사람들을 냉담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어떤 이들은 이와 다른 동기로써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보다 가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 저희가 매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위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OL 382.3

많은 사람들은 저희 형제나 이웃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냉혹한 이기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주님의 종들이 그분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동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된다. 인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과 당신의 나라에 데려 가 당신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영혼들을 빼앗기고 계신다. COL 383.1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감화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신앙을 공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 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COL 383.2

그리스도의 사업은 결코 이기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COL 383.3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문과도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COL 384.1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COL 384.2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해 달라는 간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COL 384.3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교국(異教國)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예가 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한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덕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 줌으로 저희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은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COL 385.1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COL 386.1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 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 젖히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COL 386.2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의 구별이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 3:28; 에베소서 2:13). COL 386.3

종파의 신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는 들어주어야 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한다.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 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COL 386.4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위에는 동정의 말과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는 가련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동정과 도움이 요구되는 과부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신 고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등한히 여기고 간과(看過)해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 비록 저들은 초라해 보이고, 무뚝뚝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들의 일거일동에 아무런 매력이 없을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값으로 산 자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一員)임으로 그분의 청지기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들의 영혼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COL 386.5

죄는 모든 사악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세상에는 심령의 기갈을 숨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해 주고 친절하게 생각해 줌으로써 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저 무서운 심령의 결핍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저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오직 사욕이 없는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될 수 있다. 저희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 주어야 한다. 그들을 먹여 주고, 씻어 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 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COL 387.1

세상에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곰곰이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와 과오만을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는 자포 자기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게 되면 물살의 힘이 그 사람을 뒤로 민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자.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 곧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 주라. COL 387.2

정신적으로 병든 그대의 형제들은 마치 그대 자신에게 형제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형제들은 그들처럼 연약했던 자들의 경험이 필요하며 또 그들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로 몹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COL 387.3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 계신 구주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손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라. 그러한 자들이 율법과 권력 곧 동정심이 없고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전혀들어 주지 않는 율법과 권력을 믿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들은 따뜻한 손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 자비가 넘치는 가슴에 기댈 필요가 있다. 마음속에 거룩하신 분이 항상 그들의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간직하게 하고, 항상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슬퍼하시는 천부의 마음과 지금도 팔을 펴고 계시는 천부의 손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생각하도록 하라. COL 388.1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을 갖게 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살펴 준 사마리아 사람의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서 있다. 그뿐 아니라 그대는 친히 그리스도 자신의 협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감독 하에서 일한다면 커다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COL 388.2

우리가 이 일에 충실히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친구가 되기까지 향상될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자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곤란과 재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특질 곧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계발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의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 조정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의 일을 거절한다면 그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COL 388.3

주께서는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슥 3:7)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히 1:14) 을 받은 하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마 20:28)는 자들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복된 교제를 통하여 한없는 기쁨으로써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질문 가운데 포함된 모든 분명치 않은 점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COL 389.1

28 장 은혜의 보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써 얻어 보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다. 예수께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COL 390.1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에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 인사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했다. COL 390.2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만 알았다. 구주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니라. 만일 네가 나를 그런 분(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표자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COL 390.3

예수께서 덧붙여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네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COL 391.1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에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 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COL 391.2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오니이까"라고 물었다. 이 청년은 어떤 의식적 율례(儀式的 律禮)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COL 391.3

이 청년 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 없는 품성을 보전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묻게 되었다. COL 391.4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COL 391.5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患部)를 보여 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神)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COL 392.1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 큰일을 할 수 있음을 보셨다. 그는 당신을 따른 어부들을 받으신 것처럼 이 재능 있고 고귀한 청년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이 청년이 만일 자기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쳤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 있는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COL 392.2

그러나 그는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야만 했다. 구주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마태와 그들의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눅 5:28)았다. 이 청년 관원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요구는 당신이 몸소 하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아니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이 청년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야 했다. COL 393.1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의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분은 이 청년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신 물질 대신에 그가 당신과 동역자가 될 특권을 주셨다. 그분은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특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COL 393.2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야의 왕국에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COL 393.3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더라. 그 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이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 COL 394.1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COL 394.2

이와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의 재산이 광명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COL 394.3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전 6:19, 20)다고 한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진대 저희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대로 사용할 것이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도와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봄으로써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7, 8)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할 것이다. COL 394.4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였다. 그와 그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관원에게 하신 조건적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의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다. COL 395.1

구주의 대답은 이 갈릴리 어부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다음의 말씀이 그들의 최고의 꿈을 실현시킨 명예를 묘사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부가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COL 395.2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어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곤 했다. COL 396.1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COL 396.2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나갔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갔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로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주인의 처분에 맡겼다. COL 396.3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 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COL 396.4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항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삯을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 9)고 말씀하셨다. COL 396.5

이 비유 가운데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다.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COL 397.1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엡 3:11)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딛 3:5) 하신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엡 3:20) 것이다. COL 397.2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열한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 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열 한 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COL 397.3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차적인 의미로는 보상 받을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COL 398.1

이 비유는 맨 먼저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도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게을리 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열한 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나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하셨고 저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보면 오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아침에는 장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처음에 받은 은혜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COL 399.1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때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열두 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서늘한 때에 단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삯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COL 399.2

집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COL 399.3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 COL 399.4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삯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디었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저희는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받을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불평한다. 만일 저희가 자기들의 일을 사랑과 신뢰의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게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희는 크신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COL 399.5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분은 이러한 성미를 가진 자들과 같이 일하실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감각하다. COL 400.1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의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COL 400.2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COL 400.3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렘 9:23, 24). COL 401.1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1~5).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COL 401.2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COL 402.1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는다. COL 402.2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가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에 자원해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 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COL 402.3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COL 402.4

진실한 일꾼들은 저희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것을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써 버리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요 4:34) 이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케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상해지고,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고 그분의 사업에 참예해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된다. COL 402.5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꼴찌가 될 것이다. COL 403.1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COL 403.2

아,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 곧 가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기억책에 기록된다. COL 403.3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意志)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COL 404.1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COL 404.2

29 장 열 처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다. 해는 서산에 지고 하늘은 저녁 그늘에 덮여 가고 있었다.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한 집에서는 무슨 잔치가 베풀어지는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불빛과 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멀지 않아 혼례 행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 혼례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 신랑 집으로 간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준비한다. 그리스도께서 내려다보시던 장면 역시 한 무리가 혼례 행렬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COL 405.1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다. 한 시간이 가고 두 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 왔다.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열 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중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다. COL 405.2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버려 둔 채 지나가 버렸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진 다섯 처녀는 그 무리와 합세하여 그 행렬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닫혀 버렸다. 미련한 처녀들이 피로연이 열리는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그들은 문밖 캄캄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COL 406.1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COL 406.2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슥 4:1~14). COL 406.3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 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기름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천혜(天惠)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COL 408.1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COL 408.2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COL 408.3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 되고 만다.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겔 33:31).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COL 411.1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4:20). COL 411.2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간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COL 412.1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COL 412.2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눅 13:26).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마 7:22). 여기에 대하여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나를 떠나가라"(눅 13:27)고 대답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COL 412.3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 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머거리의 귀에는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 곳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COL 413.1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COL 414.1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 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 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COL 414.2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의 빛인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 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COL 414.3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살후 2:9, 10)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COL 414.4

그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고후 4:3)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창 1:2) 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창 1:3)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고 하신다. COL 415.1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사 60:2)라. COL 415.2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COL 415.3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다음의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사 40:9, 10). COL 415.4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COL 415.5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COL 416.1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행 10:38),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었다.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 19).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 16)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COL 416.2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이 묘사되었다.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7, 8). COL 417.1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춰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 COL 417.2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인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 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COL 417.3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COL 417.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써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 대상자와 친밀해져야 한다. COL 418.1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 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 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 주라. COL 418.2

빛은 축복이 되나니 곧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도 아니하고, 부패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 붓는 우주적인 축복이다. 의의 태양의 빛도 그러하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COL 418.3

소망과 자비의 기별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와 화친할 수 있다. 이교도들이 더 이상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도록 놔두지 말라. 의로운 해의 밝은 광선 앞에서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사라져 버린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정복되었다. COL 418.4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 그릇에 있는 금 기름을 금관(金管)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COL 418.5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COL 419.1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COL 419.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COL 419.3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COL 419.4

의로운 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 4:2).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한다. COL 419.5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COL 4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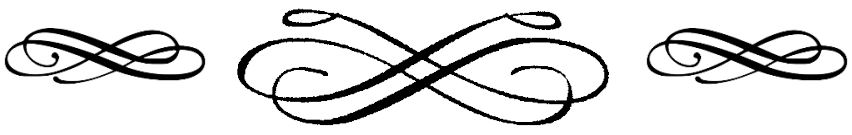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 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감화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COL 420.2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서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潮流)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COL 420.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 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취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27)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COL 420.4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라고. COL 421.1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6~9), "그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자니"(계 17:14, 구역)라. COL 421.2

끝을 기대하면서